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4·1
VOL.223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4년

1분기(1~3월)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

모집일정 및 수강기간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신청가능

수강기간 2024년 1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수강신청 및 문의

전화 및 방문접수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4206-9140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0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4:00-15: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가곡교실	20명	수) 12:00-13:5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10	수채화교실	1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1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5: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2	스마트폰 사진교실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대 상 | 전 연령,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수강과목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한국무용 (기초반, 심화반)

아랑고고장구

웰빙댄스

너도나도 방송댄스

가곡교실

수채화교실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스마트폰 사진교실

팡팡노래교실

상담문의

070-4206-9140

부산예술회관





ART BUSAN MONTHLY VOL.223

2024 JANUARY 1

CONTENTS

신년인사

- 06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 0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 08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 09 부산예총 회장·임원·단위협회장

예서제서

- 14 2023 굿바이 송년 _ 이효민
- 20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청흥동 국악예술단 - 이야기가 있는 가야금병창 '얼썩! 한바탕 놀아보세' _ 정지영
- 22 2023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 예술잇지 _ 정지영
- 24 부산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나는나야!' _ 김도희
- 26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_ 이효민
- 28 부산국악대축제 - 여성국극 <임진홍락> _ 정지영
- 30 제42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전
- 31 유엔평화기념관 - 유엔참전용사의 흔적을 기억하다
- 32 부산예술회관 상주단체 극단 누리에 - 표본실의 청개구리 _ 이효민
- 36 정미숙의 춤 - 그리다 _ 이경화
- 38 2023 이바디예술단과 함께하는 소리의 향기 [二打] _ 김명수
- 40 마우스 북페어 _ 이지윤



자갈치_Oil on canvas, 45×45cm, 2023

표지_ 김충진

개인전 10회, 단체전 250여 회

작품소장처: 부산시립미술관, 부산국립해양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BNK부산은행



- 42 디그리소한국위원회 - 2023 디그리소
- 44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VI
춤-바라보다 _ 이지윤
- 46 고은사진미술관+KT&G 상상마당 - 올해의 작가전
- 48 장인영 '삶의 형이상학'
- 49 초정 김석호 개인전

포토에세이

- 50 희망의 해 _ 강종관

時雨일기

- 54 일력 _ 문경희

인물포커스

- 58 연출가 강인정 _ 이효민

예인탐방

- 60 동시인 정재분 _ 이지윤

예술가열전 216

- 62 극작가 김문홍 _ 김영희

손으로 쓴 문학

- 66 이기대 동백 _ 배기환

들어다보기

- 68 무용/ 하야로비무용단
〈객-인간은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왔을 뿐〉 _ 함수경
- 70 문학/ 제만자 시조집 『아직 곁에 두고 있어』 _ 정희경
- 72 미술/ 이창진 '통계학적 미술사' _ 김영준
- 74 연극/〈아빠〉 _ 김남석
- 76 영화/〈절해고도〉 _ 김민우

기획연재

- 78 예술치료 I - 단일예술치료와 통합예술치료 _ 김소형
- 82 예총·전사·공연 뉴스
- 86 신간 안내
- 9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4년 1월 동권 223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3년 12월 22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박태원(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객원기자_ 이지윤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삶이 더 풍요로운 도시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부산 시민,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힘과 지혜, 희망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월 초 궁궐이나 관청의 대문에 청룡도를 붙여 액운을 물리치고, 한 해 기운이 길하기를 기원했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기운을 담뱃받아 부산 시민 모두가 높이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은 아쉬운 탄식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부산'을 넘어 '세계 속의 부산'으로도 약할 수 있다는 희망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이 깨어나면서 실제 부산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 도시 지수 세계 15위, 싱가포르-홍콩에 이어 아시아 3위에 올랐고,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 EIU가 발표한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는 아시아 6위를 달성했습니다. 삼성, 한화, 롯데 등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혁신기업이 부산행을 택하면서 기업투자 유치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4년은 이러한 가능성을 발판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우리의 꿈을 더욱 선명히 그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금융 물류 관광을 확실한 성장엔진으로 도약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창업기업이 부산 안에서 더 큰 꿈을 키울 것입니다. 부산이 남부권 새로운 거점이 되어, 두 바퀴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새로운 그림의 화룡점정은 '문화예술'입니다.

예술은 도시의 경쟁력 그 자체이고, 우리 부산은 이미 상당한 문화예술의 힘을 축적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산문화의 힘을 길러오신 문화예술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제나 예술 인프라는 우리가 일부러 그 지역을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예술제와 갈매랑축제 등 시민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 미술관이 더해진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챗바퀴처럼 도는 일상에서 예술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위로하며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문화예술로 삶이 더 풍요로운 도시. 2024년은 그러한 부산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뛰는 부산, 비상하는 2024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문화, 시민 화합·부산 대도약 이끄는 희망 에너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예술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희망으로 빛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부산 예술인들이 일군 빛나는 성취는 부산시민에게 희망을 선물하기에 충분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헌신과 고군분투 또한 힘찬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목적지에 가 닿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우리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부산의 도약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큰 견인차라는 점 또한 각인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힘은 참으로 지대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연대감으로 성원해 주신 부산 예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부산의 엑스포 유치 도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국가발전 동력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갈망에서 시작되었고 이 목표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원팀이 되어 함께 땀 흘린 것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잠시 좌절되었지만 우리의 목표가 사

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계박람회라는 기회를 놓쳤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다시 뛰어야 합니다. 북항재개발을 비롯한 부산재창조와 가덕도신공항 개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박차를 가해 물류, 금융, 스마트 신산업이 이끄는 역동의 미래를 앞당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문화예술의 융성이 실현되어야 우리가 꿈꾸는 부산의 미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달라지기까지 열정을 다해 지역 문화예술의 텃밭을 가꾸어 온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헌신에 빛진 바 큼니다. 새 희망과 함께 시작된 2024년도 부산 문화예술의 활기찬 에너지는 시민의 화합과 부산 대도약을 이끌 희망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성취가 바로 부산의 성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함께 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하고 예술문화도시 부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산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문화예술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자긍심을 복돋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예술계를 선도하는 구심점으로 도약하길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큰 힘이 되어 주신 부산예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용과 같이 비상하여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도모하시고 부산 예술계의 화합에 공헌하신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수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예술인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며 예술계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는 『예술부산』은 부산지역 예술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취재한 현장 소식과 다양한 예술 행사 비평은 물론, 예술 세계의 저변을 확대하는 마중물의 역할로, 우리 부산이 예술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축제를 지원하고, '부산교육가족예술축제' 등 여러 예술 행사를 주최하며 부산 시민들과 청소년들에

게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교육 활성화로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술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전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체험 기회를 얻게 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키워, 고운 인성을 갖춘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과 감성, 그리고 인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꿈을 소중하게 키우는 데 지속해서 큰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부산 예술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대한민국 예술을 선도해 나가는 구심점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예술부산』의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생명력과 비상의 기운을 품은 신수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부산 예술인들 모두가 높이 비상하여 부산 예술계의 역량을 보여주는 해가 되리라 확신하고 회원합니다. 부산예총은 예술인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는 환경을 만들고 예술의 가치와 가능성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문화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문화가 있는 날', 5월에는 '청소년 예술제', 빛나는 여름철은 '갈매랑축제', 천고마비의 계절에 예술의 향기를 더하는 '부산예술제', 12월에는 '굿바이송년' 등, 부산예총은 12개 단위협회와 함께 새로운 2024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모여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희망과 전진의 동력이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남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연극협회 회장)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부산연극제가 축제로 변화하며 다양한 부산 시민분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나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더욱 적극적인 연극 소통의 장으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의 축제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부산연극협회의 힘찬 발걸음에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갑용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무용협회 회장)

갑진년 새해가 푸른 용의 기운을 안고 시작됩니다. 지난해 희망을 안고 소망을 기원했던 모든 일들이 갑진년에도 희망과 소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춤과 무용이 같이 공유되어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각 지역과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발전하여 협력적 무용 예술 다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부산의 춤과 정신이 새로운 시점과 과제를 부여받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2024년에는 희망을 위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는 부산무용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규성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

세월은 어느덧 흘러 2023년이 가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의 가슴은 설레임과 희망찬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2024년을 맞아 우리 부산연예예술인협회는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와 노하우를 발판 삼아 부산 시민과 함께, 새로이 도약하는 해를 만들겠습니다. 5월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제8회 부산항 해양가요제'를 개최하며, 10월이 되면 부산예술제를 맞아 '제25회 부산실버가요제'를 개최해 대중가요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예총 회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성범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감사

새해 일출이 그러하듯 신년의 서막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 뜨거운 힘으로 우리는 다시 내일을 조각하고 거친 세파를 헤쳐 나갑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는 푸른 용의 비상처럼 우렁찬 기운이 모든 가정에 깃들길 바라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예술을 추구해 가는 우리 예술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결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은 각자의 소망대로 흐릅니다. 당찬 각오로 예술인의 긍지를 가지고 정진해 나갑시다. 그럴 때 부산예술은 세계 중심의 문화, 세계 중심의 예술로 도약할 것입니다. 새해는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단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예술의 꽃을 활짝 피우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표응석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감사

올해 2023년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위축되었던 우리 예총의 활동들이 코로나 극복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해로서, 부산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은 우리 예총의 역량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예총의 역할이 빛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봉두 부산건축가회 회장

2023년은 코로나로 움츠렸던 부산 예술계가 동면에서 깨어나듯 그 존재감을 표출하며, 한껏 교류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발판으로 부산은 '예술도시 부산'이 되고 시민들은 '예술도시 시민'이 되도록 예술계가 함께 마음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해 부산건축가회도 예술인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건축이 예술로, 문화로 잘 다듬어진 도시들입니다. 올 한 해, 부산건축가회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도시 전시관 건립이라는 화두에 집중하고 '예술건축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2024갑진년, 함께하는 부산 예술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인숙 부산국악협회 회장

2024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진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용은 하늘을 날며 물을 조절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큰 희망과 성취,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2024년 청룡은 우리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고,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기운과 행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음악은 우리네 삶 속에서 울고 웃게 만들기도 하고 희망과 비상을 꿈꾸게 하기도 합니다. 청룡의 해에 맞게 부산국악협회도 우리 음악을 통해 더욱 비상하는 2024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래 부산문인협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마지막 일새인 12월에는 작고문인 재조명이 있었습니다. 년 중 행사 24개 중 그에 앞서 11월 15, 16일에는 한국문협과 제주특별자치도 외 여러 지역 문인 참가자를 모시고 10년 만에 부산문인협회 주최로 '글의 길과 길의 글' 심포지엄 1, 한국문협 이사장 김호운의 '한국문학의 통섭과 그 역할, 삶의 의미로서의 문학' 심포지엄 2, 축하공연 및 시내투어 행사 등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협회 운영의 제도 개선에 힘써온 지난해는 삭감됐던 예산을 시로부터 원상회복 시켜 올해는 정상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2년간 준비한 <부산문인 대사전>도 발간해 부산문인의 날에 배부코자 준비 중입니다. 각 단위단체가 잘 운영되면 전체가 활성화되고 부산예총이 융성해질 것입니다. 이에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예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인 여러분과 문협 회원 여러분께 문운 건강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태원 부산미술협회 회장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2023년 부산 예술계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연이어 막을 올려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부산미술협회에서는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을 비롯하여 부산미술제, BFAA아트페어 등 대규모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내며 부산 시민들과 함께 상생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겪은 팬데믹은 삶의 방식과 가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겪는 불안을 해소하고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문화 예술인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해가 되길 바라며, 각 분야 예술인들이 합심하여 부산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이어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강종관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 보니 기쁨, 슬픔, 고마움, 미움, 아쉬움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청룡의 해인 갑진년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평화로움이 함께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과 예총 회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모두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용맹정진하고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영조 부산영화인협회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함께 해주신 모든 시간에 감사도 못 드린 채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용은 신비로운 존재로 큰 희망과 성취, 그리고 행운의 상징입니다.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여의주를 문 용처럼 그 소망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용의 기운을 받아 건강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영화인협회는 올해도 영화예술의 힘으로 예술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성은 부산음악협회 회장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많은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올려 대중과의 소통이 한층 많아지는 기회가 생겨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부산음악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공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중들도 협회의 공연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콘서트홀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부산의 지역 음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술계에 좋은 소식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부산음악협회 회원분들과 예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라 부산꽃예술작가협회 회장

희망과 설렘을 안고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지원하며, 용처럼 비상하는 문화예술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꽃작가회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며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느껴보았습니다. 올 한 해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시민과 함께하는 꽃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023년은 꽃작가회를 창립하신 황수로 회장님의 '은관문화훈장' 수훈으로 꽃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갖고 활동해 갈 꽃작가회가 부산예총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협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총과 여러 협회 회장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자 부산차문화진흥원 회장

푸른 용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룡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상상의 힘은 무궁무진해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새해 새롭게 내딛는 발걸음이 한층 기대로 가득 찹니다. 흑여 눈에 띄는 도약이 아니어도,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현대사회가 변화하며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한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를 버터내는 힘은 '문화예술'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면서도 종합적인 바탕이 되는 근간에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을 지켜낸다면 그 사회는 한 걸음이라도 발전할 것입니다. 부산의 예술이 다져온 전통의 힘, 그 힘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부산의 한 챕터를 엮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연말 #레트로 #공연 #성공적

굿바이 2023 송년

2023. 12. 11. / 14.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2월이면 많은 이들이 공연장을 찾는다. 예술과 담쌓고 살던 사람의 발길까지 붙드는 연말 공연 특수 이유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고픈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에 기인할 것이다. 무대 위 화려한 공연이 주는 시청각적인 에너지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새해를 준비하기 안성맞춤이니 말이다.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굿바이 송년'은 겨울비도 막지 못한 열정적인 관객들과 양일간 함께했다.



부산국악협회가야금연주단



코바이 송년 2023

12월 11일 [월] / 12월 14일 [목] 19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올해 공연의 특징이라면 역시, 음악과 춤이라는 공연 예술의 양대 산맥을 아울러 다양한 장르의 종합선물 세트로 엮었다는 점일 것이다. 첫날인 11일은 6개 단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꾸몄다. 시작은 [와락심포니가 대북의 웅장함으로 열면서, 태평소와 타악기를 중심으로 세상의 무사·평안 기원의 의미를 담은 <시나위 “太平”>을 선보였다. [아트프로젝트 올로]의 젊은 현대무용가들은 <찬란했던 우리>라는 주제에 맞춰 추억을 회상하는 듯 따뜻한 감정, 서글픈 감정 등을 모이고, 흩어지고, 유기적인 형상을 이루는 등 몸으로 표현했다. 이어서 [부산국악협회가야금연주단이 여섯 대의 가야금을 중심으로 양금, 타악, 신디사이저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영화 <왕의 남자> OST로 유명한 「인연」

- 1 빈체로 댄스스포츠
- 2 동백유랑단
- 3 와락심포니
- 4 미어브라스 앙상블
- 5 아트프로젝트 올로

은 김지영의 병창이 더해져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했고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같은 부산을 상징하는 노래를 연주해 객석을 채운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섰다. 다음 공연이 준비되는 동안 사회를 맡은 '교통여신' 김지현 아나운서(TBN교통방송)가 깜짝 퀴즈도 냈다. 올해 예총은 60주년을 맞았고, 특별회원단체 포함 12개 단위협회로 구성된 점, 부산예술회관 좌석 수는 장애인석(4석) 포함 240석이라는 것 등, 가깝게는 해운대에서 멀게는 경남 함안군에서 온 관객들이 정답을 맞히고 경품을 받았다.

[미어 브라스 앙상블]은 트럼펫 호른 튜바 트럼본 색소폰으로 화려한 금관악기의 매력을 뽐냈다. 재즈풍의 느긋한 선율부터 경쾌한 멜로디까지, 「Just a closer walk」 「Amazing grace」 「사랑은」 「My way」에 이어 「Nella

fantasia」로 대미를 장식했다. 멜빵바지와 땡땡이 치마 등으로 '굿바이 송년 2023'의 콘셉트 '레트로'를 구현한 [빈체로 댄스스포츠] 팀은 등장과 동시에 객석을 휘어잡았다. 왈츠 살사 자이브 등에 기반한 창작 무용과 탱고 등을 혼성무대와 여성, 남성 무용수 각각의 열정으로 선보였고 객석은 그 열정에 환호성으로 보답했다. 크로스오버 앙상블 팀 [동백유랑단]은 헝가리 무곡, 러시아 민요 등을 그들만의 색깔로 편곡한 곡과 「동백 카니발」 「광안리 블루스」 등 동백유랑단 창작곡을 첫날 마지막 무대다운 화려한 연주와 무대 매너로 선보였다.

첫 공연 날에 이어 14일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은 부산연극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연예예술인협회가 준비





했다. [예술집단 백미(白眉)]는 뮤지컬 갈라쇼 형식으로, 군무와 곁들여서 또는 독창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주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의 노래 「뜻을 모으다」, 실학운동의 선구자 박서생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박서생〉에 나온 「청산에 살어리랏다」, 뮤지컬 〈서편제〉의 가장 유명한 OST라고 할 수 있는 「살다 보면」 등에 이어 뮤지컬 〈맘마미아〉,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도 신나는 군무와 함께 선보였다.

다음은 발레, 전통무용, 현대무용 3종 춤판이었다. 먼저 [부산아이디발레단] 4인의 발레리나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표 OST인 「인생의 회전목마」에 맞춰 우아한 발레 동작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발레리노 독무와 격동적인 음악에 맞춘 안무까지, 짧지만 발레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무대였다. [한국춤프로젝트 가미]는 그들의 신전통 레퍼토리 작품 〈신신(新神)〉으로 경고와 버꾸를 들고 추는 활달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였다. [피오디 댄스 프로젝트]는 연습 시간에 비해 짧게만 느껴지는 공연이 끝난 뒤 밀려오는 공허함을 「Ending Credit」이라는 현대무용 작품으로 표현했다. 소품 '빗자루'를 활용해 무대 뒷정리하는 스태프로 분한 댄서들은 서서히 고조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모든 걸 불태우고 사그라드는 성냥개비처럼 춤을 멈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새로운 시작(New Start)’이라는 의미의 [NS BAND]는 다양한 히트곡으로 객석 분위기를 돋웠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쇼퀸〉에서 결승전에 진출하기도 했던 가수 박지수가 「너는 내남자」 「돌리도」, 가수 차성연은 「아줌마는 살아있다」 「여정」, 가수 안규성은 「위하여」 등을 불렀다. 「내 나이가 어때서」 「징글벨」 「창박을 보라」를 다 함께 부르면서 비 내리는 겨울밤이 저물었다.



10

‘언니, 동생’ 사이라는 이웃사촌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한 관객은 “올해 마무리를 제대로 한 기분이다.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갔다”면서 기분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레트로 콘셉트에 맞게 준비한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벤트 등의 유쾌한 행사가 공연 예술이 주는 감동의 힘과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글_이효민

- 6 부산아이디발레단
- 7 피오디 댄스 프로젝트
- 8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 9 NS BAND
- 10 예술집단 백미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청흥동 국악예술단_이야기가있는 가야금병창 '얼썩! 한바탕 놀아보세'

2023. 11. 29. 오후 7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흥동국악예술단]이 2023년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랐다. 청흥동은 가야금의 소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구음에서 차용했다. 가야금병창은 가야금 연주에 맞추어 단가나 판소리, 민요 등을 노래하는 공연 예술이다. [청흥동국악예술단]은 스승과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보존과 창작에 힘쓰며 가야금병창의 명맥을 잇고 있다.

“어이야 디여차, 어기야~ 등백꽃 피는 부산 갈매기 춤춘다~”

첫 곡은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을 노래한 공혜영 편곡으로 남도민요를 가야금병창으로 부르는 「부산민요」다. 등백꽃이 피고 갈매기가 허공을 가르는 아름다운 부산의 풍경을 굿거리장단의 가야금 선율에 실었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고 신명나는 선율이 어렵지 않아 후렴구를 따라 부르게 된다. 이어진 연주곡은 경상도 민요로 골패하는 모습을 노랫말로 엮은 자진모리 장단의 「골패타령」과 익살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가사가 매력적인 「개타령」, 가을 들녘 황금물결로 채워진 풍경을 담은 「풍년가」다.

25현 가야금도 이날 출연했다. 일반 가야금과 달리 25현 가야금은 줄의 개수뿐만 아니라 안죽의 개수도 다르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소재에 있다. 100% 명주실만 사용하는 전통방식의 가야금과 달리 25현 가야금은 명주실에 나일론을 섞어 줄의 탄





성을 더했기에 소리의 울림과 음량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번 공연에선 3중주로 편곡해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인어공주〉 〈모아나〉 〈겨울왕국〉 OST를 들려줬다. 저음과 고음이 조화를 이루며 귀에 익숙한 OST 선율이 애니메이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계속해서 감상한 가야금병창은 「사철가」와 「옹혜야」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로 시작하는 단가로 알려진 「사철가」를 가야금병창으로 들으니 새로운 멋이 느껴졌다. 「옹혜야」는 농사일의 고됨을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동요로, 반복되는 '옹혜야'는 처음 가락을 듣는 사람들도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흥겹다.

춤꾼 장래훈도 공연에 함께했다. 굿거리 자진모리 장단으로 전통춤을 새롭게 창작한 춤으로 장단을 따라 춤사위도 빨라진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을 역임한 그의 춤은 무대에 역동성을 더하며 공연을 풍성하게 했다.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청·홍·동국악예술단]의 이태영이 홀로 무대로 나와 판소리 한 대목을 선사했다. 땀인잔치를 가는 길에 뺨뚱이네가 다른 젊은 봉사와 눈이 맞아 도망가고 심봉사가 탄식하는 「심봉사 횡성 올라가는 대목」을 노래했다. 이태영은 공연 전날 가벼운 부상으로 공연이 쉽지 않은 컨디션이었지만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섰다고 했다. 그 고백을 듣기 전까지 그는 공력 탄탄한 소리꾼이었다.

이혜영 김경미 배혜정은 장구에 몸짓과 소리 그리고 북놀이로 공연에 다양함을 더했다. 잔잔한 가야금 선율로 시작했던 공연은 가벼운 춤사위와 기예를 더한 사물판굿으로 막을 내렸다.

가야금병창은 처음에 가야금산조의 명인들이 불렀다 한다. 원곡이 있는 노래를 병창으로 부를 때에는 가야금이 소리의 선율을 수성(隨聲)으로 따라가기에 본래 곡과 다른 맛이 나고 가야금병창 특유의 가락이 생겨나게 된다. 가야금 연주자가 직접 연주하면서 단가나 민요, 판소리 가운데 한 대목을 부르기 때문에 악기연주와 노래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야금병창의 참맛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해 온 강명옥 선생을 필두로 가야금병창의 멋을 알고 있는 [청·홍·동국악예술단]의 활발한 활동과 개성 넘치는 공연을 지속해서 펼쳐주길 기대해 본다.

글_정지영



2023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생활과 예술을 잇다

예술 잇기

2023. 12. 7.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2월 7일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발표회 무대 '예술잇기'가 열렸다. '예술잇기'는 생활과 예술을 이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만든다는 의미다. 부산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카데미 수업은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아랑고장구, 웰빙댄스, 한국무용교실, 팡팡노래교실, 가곡교실, 수채화교실, 드로잉교실 등이다. 노래든 춤이든 그림이든 관심과 취미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수업에 참여한 결실을 선보인 무대였다.

개성껏 멋을 낸 라인댄스 수강생들은 「기장갈매기」와 「1,2,3,4,5,6,7,8」에 맞춰 무대를 종횡무진했다. 건강한 춤바람에 폭 빠진 부경대학교 박승섭 교수는 일여 년 전과 완전 달라진 표정과 자세로 라인댄스부터 댄스스포츠, 웰빙댄스까지 무대마다 빛을 발했다. 초대가수로 착각할 만큼 멋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팡팡노래교실 수강생 허소연은 「초

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대에 오른 이수영은 「터미널」로 노래 솜씨를 뽐냈다. 한국무용교실 기초반은 올해 최연소 수강생인 수지양이 엄마와 함께 수업을 듣고 〈한량무〉를 멋들어지게 선사했고, 심화반은 〈지전춤〉을 선보였다. 〈지전춤〉은 동해안 굿 명인인 김계향에게 굿춤을 배운 김혜경 강사가 자신의 춤에 접목해 만든 춤이다. 지난해에 이어 신명나는 장구가락과 율동, 노래를 선보인 아랑고고장구반은 다른 수강생들의 마음까지 유혹했다. 마지막은 팡팡노래교실 중창단이 무대에 올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부라보 아줌마」를 열창했다.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집안에서 뿔뿔하느냐 /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모닝 커피 한 잔 마시자 / 집에서 하루 종일 굶은 일 하고 / 시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 화를 내고 짜증 내면 나만 손



해 / 째짜라 째 째짜라 째 /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부라보 아줌마”

「부라보 아줌마」의 가사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게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잇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예술적 체험은 창조성과 자율성, 삶에 있어 자기 결정력을 높여주며 수동적 참여보다는 직접 예술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예술잇지 무대에 선 수강생들의 표정은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예술에 있어 수동적 향유자가 아니라 능동적 창조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지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다양한 아카데미 수업이 2024년에도 계속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을 '강추'한다.

글_정지영

1 댄스스포츠 2 라인댄스 3 웰빙댄스

4 노래교실_솔로_허소연 이수영 5 노래교실 단체

6 한국무용 기초반_한량무 7 한국무용 심화반_지전춤

8 아랑고고장구





부산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나는 나야!

2023 부산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나는나야!' 사업을 8개월간 진행한 문화예술교육사 김도희입니다. '나는나야!'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부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저변확대 및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지역의 예술인과 생활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 그리고 청년예술인 등 예술문화의 사회적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역과 예술의 공존 및 생존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나는나야!'는 기존 진행했던 공연과 전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감성과 독자적 주체성을 가지고 예술을 통해 예술인과 지역민이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예술교육은 여전히 공공이나 민간 구분 없이 미술, 연극, 영화 등 분

야가 나누어져 있고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장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 장르 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본체)을 고찰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는나야!'가 출발합니다.

'나는나야!'는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원하는 나!, 나를 잘 아는 나!'를 줄인 말로, 진정한 나를 찾고 예술활동을 통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해 보는 수업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20 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했으며, 참가한 아이들은 모두 15 명입니다.

'나는나야!'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테마의 융합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시

도했습니다. 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잠재적 예술성을 분출하고, 심리적 예술 치유와 동시에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의 틀과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자아실현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마지막 차시에는 6개월간의 수업에서 변화된 모습을 공연 <이상한 학교>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상한 학교>를 기획하고 직접 무대에서 공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취적인 사고로 본연의 나를 찾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감도 심어주었습니다. 공연 <이상한 학교>는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

모든 또한 자신에게 집중하고 탐구하는 시간이었으며, 수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폭넓은 장르로 구성된 체험형 문화예술융합 교육인 '나는 나야!'는 다채로운 시선으로 예술문화를 즐기는 방법과 부산예술회관에서 누구나 예술교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및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예술문화의 가치와 필요에 대해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 이번 교육이 예술문화에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_김도희 문화예술교육사



1,2 나는나야! 수업사진 3,4 이상한학교



과거·현재·미래의 도시를 잇는 연결고리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2023. 12. 13. 오후 3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고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논의, 그 첫 발을 뒀다. 이봉두 회장은 시작에 앞서 "부산은 한마디로 다채로운 도시다. 서울도시건축관 개관을 필두로 지역별 건축도시전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건립에 대한 의지를 모으길 바란다"고 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차윤석 교수**는 우선, 부산의 도시건축문화에 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립 타당성을 따지는데 다양한 논리가 있겠으나 기저에 깔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무엇이 부산의 건축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함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할 원론적인 내용을 발제로 들을 수 있었다.

첫 강연자 **조경찬 대표**는 서울도시건축관 개관 과정을 설명했다. 왼쪽은 덕수궁 돌담길, 오른쪽은 서울시의회, 뒤편은 대한성공회성당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맥락을 고려했고 광장의 역할과 서울을 아카이브하는 전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상은 1층으로 덕수궁 돌담의 연장이 되도록 했고, 지하는 3개 층을 기본으로 광장을 만들고 서로 바라볼 수 있게 곳곳에 층을 튀어나거나 유리로 벽을 만들었다고 한다.

- 발제 차윤석(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강연 전평재(주식회사 메이커 대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 강연 조경찬(티미널7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설계)
- 강연 김유경(UKST 건축사사무소 대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
- 패널 김봉철(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국장)
- 패널 이봉두(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
- 패널 최진태(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부산건축사회
- 패널 이상진(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장) 부울경 건축학회
- 패널 이성호(부산국제건축제 집행위원장)

김유경 대표는 3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3년 12월 착공 시작(25년 완공 예정)한 세종시 도시건축박물관 설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4가지 담론(아카이브, 전시, 연구·담론 형성·전문가 양성, 대중 교육·소통)을 요구받았고 '재사용 철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계안을 만들었다. 설계안을 현실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사용 철골의 납품 문제, 안정성 확보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었고 결국 원안을 살리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해 아쉽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전평재 대표는 서울도시건축관 실제 운영 현황은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까지 공유했다.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관'이 각각 맡은 역할도 법령도 다른데 부산에서는 나뉘지 않고 통합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점, 전시와 같은 콘텐츠 활용에 있어 마감재의 차이로 인해 작품 부착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점을 애초에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적 논의를 위한 '조직 체계'를 먼저 잘 갖추고 시작하면 좋을 거라는 점 등이다. 부산은 예산 확보도 더 철저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예산이 23년 18.8억에서 24년 17.5억으로 1.3억 삭감된 사실과 콘텐츠에 6억이 드는 등의 현황도 정확하게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진태 회장**은 대한민국 건축의 위상이 높아진 현재, 전시관 건립은 당연하다고 밝히며 "르 꼬르뷔제가 '건축은 기능을 담는 그릇'이라 한 것에 더해 '건축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 말하고 싶다"면서 과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이 기억을 저장·열람하는 아카이브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봉두 회장은 '위치·시설·운영체계·공사비 조달·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전평재 대표에게 "서울의 경우 센터와 건축관이 따로인 것에 장단점이 있는가"를 질문해 "센터는 아카이브 위주, 건축관은 전시 위주이지만 새로 만든다면 당연히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

을 받았다.

김봉철 국장은 서울의 사례를 보며 위치와 시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복합시설이 되면 방문객 유치에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는 조기완공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발언을 했다. 토론의 좌장으로 나선 차윤석 교수는 "밑에서부터 관심이 올라오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상진 회장은 "학회를 대변해 나왔으니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겠다"면서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시민들, 비건축전문가인 시 관계자들에게도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이 되어가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도시 구성 요소로서 건축이 중요하기에 건축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 말했다. 그러므로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은 담론을 담아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위치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땅에 지어야 하고, 부산국제건축제를 비롯한 유관기관 콘텐츠도 아카이브 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를 위한 전시관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평재 대표에게 아이디어를 질문해 "일반 시민의 관심 증가를 위해 조경, 공원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건축관계자와 건축과 학생 등 다양한 인원이 모인 객석에서도 의견이 쏟아지는 등 이날 포럼은 차윤석 교수의 말마따나 "의욕과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한 자리"였다. 첫발을 뗀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이正道를 걸어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길 희망한다.

글_이효민

부산국악대축제 여성국극 <임진홍락>

1592년 4월, 왜군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다. 그들은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무너뜨리며 한양을 향했다. 남산 봉수대에 다섯 줄기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발마의 말발굽 소리는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조정과 지배층 양반들은 '설마'하며 대비하지 않았다.

부산 충렬사 의열각에는 임진왜란 때 송상현공과 정발 장군을 따라 순절한 금섬(金巖)과 애향(愛香), 그리고 무명(無名)의 두 여인이 배향돼 있다. 기생이었던 금섬과 애향은 임란 개전 직후, 피란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왜적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여인은 왜적이 동래성 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명장루에 올라가 기와를 던지며 저항했다. 단오를 앞두고 그네를 타려던 꿈도 진달래꽃을

머리에 꽂고 봄을 맞으려던 행복한 일상을 접어두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이들이다.

부산국악협회(회장 김인숙)가 의열각에 배향된 네 여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여성국극 <壬辰紅落>을 선보였다. 12월 2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 <壬辰紅落>을 통해 승고한 정신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다.

설희와 가비(의열각에는 무명씨로 돼 있지만 국극에서는 설희와 가비로 설정했다)의 혼사를 전하는 동네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1시간 남짓 공연은 아쉬움만 가득 안고 극장을 나오게 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담기에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은 작고 무대는 단출했다. 무대가 단출한 만큼 조명이든 음향이든 다른 극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공연은 오롯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충실



했다. 사전에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숙지한 관객은 1시간 남짓으로 압축된 공연에 그나마 공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연 내용만 놓고 본다면 금섬과 애향의 선택은 그 시대는 맞고 이 시대는 '왜'라는 질문만 남겼다. 송상현 역의 김지원, 정발장군 역의 허애명, 금섬 역의 김신영, 애향 역의 신소연, 왜장 역의 허지영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조금만 더'라는 '뭔가를 할 수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떨쳐지지 않았다.

지역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린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그 고단함에 대해 생각하게 한 무대였다. 여성국극은 여성 배우들이 여성·남성 배역을 모두 소화하는 국악연극이다. 1940년대 출현해 1950년대 전성기를 보냈다. 시초는 '1948년 국악원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반발해 여성 국악인들끼리 조직한 [여성국악동호회]'다. TV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기 이전 여성국극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대중예술이었다. 김지혜의 『여성국극의 역사, 다시보기와 재현』에 따르면 여성국극의 인기는 '두 여성이 사랑하는 남녀를 연기한다는 점' '남녀 주인공의 매력'에 있다. 관객은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가 여자인 줄 알면서도 움직임이나 소리, 춤사위에 빠져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팬층이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TV와 영화의 출현으로 1960년대부터 여성국극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잊혀져 가던 여성국극은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국악협회는 <장화홍련> <홍부진> <춘향전> 등의 고전을 여성국극으로 제작해 무대에 올렸다. 최근 들어 <이도재와 기월매> <파랑새의 녀> <연약> 등 지역의 역사가 담긴 창작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제는 맥을 잇는다는 명분만으로 관객을 불러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성국극을 아는 중년 이상의 세대 뿐만 아니라 MZ세대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무대 공연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제는 예산이다. 제

작자나 연출자가 볼거리 풍성한 무대를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고 출연자들은 연습이 싫어서 준비시간이 짧은 게 아니다. 또,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리면 예술이 가진 무수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성장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발터 벤야민은 '새것을 갖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면 아무리 오래된 것도 새것이 된다'고 했다. '오랜 시간을 순명하며 살아나 온 것/시류를 거슬러 정직하게 남아진 것/남아짐으로 꾸준히 새로워지는 것' 그 '오래된 것들'(박노해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이 아름답게 꽃피기 위해 예산을 포함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단, 공연 말미 '우리는 살아서 부산을 지키는 신이 될 것'이라는 진부한 표현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변화되는 시대를 반영하면서 '새것은 흉내내지 못할 '오래된 것'의 매력을 발굴해 내는 것,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문화유산을 오롯이 정립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글_정지영



제42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전

2023. 12. 5. ~ 8.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는 지난해 10월 15일 해운대 송림 공원에서 성황리에 제42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고, 응모작 심사를 거쳐 수상작 전시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었다.

이번 촬영대회는 마을의 수호신인 '장승' 깎는 장인의 작업 과정과 현대무용가들의 퍼포먼스를 대상으로 했다. 촬영대회 사진은 장소의 분위기와 모델과의 조화, 광선의 조건, 화면구성을 위한 적절한 렌즈 사용, 셔터 찬스 등 사진의 기본적인 요소를 잘 이해해서 모델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상에 선정된 이형욱의 「뚝순이」는 '전체적으로 정靜과 동動의 분위기와 화면구성, 공간처리가 조화로운 완벽한 작품'으로 '부드러운 곡선 위에 두 팔 벌린 모델의 동작과 알맞게 비춰진 입체감 있는 사광선과 적당한 배경처리가 나무랄데 없는 수작'이다. 은상을 수상한 백종기의 「포즈2」는 '안정감 있는 정적인 수직 수평의 프레임 속에 무희들의 묘한 부드러운 손동작의 춤사위가 동감으로 꿈틀대는 살아있는 멋스러운 사진'이며, 정조훈의 「장승 장인의 혼」은 '반역광에서 다이내믹한 힘을 보여준 작품'이다.

강종관 회장은 "촬영대회를 통해 사진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개최할 촬영대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편집실

- 1 금상 이형욱_뚝순이
- 2 은상 백종기_포즈2 3 은상 정조훈_장승 장인의 혼



1



2



3

유엔참전용사의 흔적을 기억하라

2023. 11. 10. ~ 2024. 12. 31.
유엔평화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유엔평화기념관(관장 김광우)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기증자료 특별전 <UN참전용사의 흔적을 기억하다>를 부산 남구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에서 개막했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6·25전쟁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해하고, 전쟁을 온몸으로 버텨낸 참전용사들이 남긴 흔적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의 군복과 을지·충무·화랑무공훈장, 육이오사변중군기장, 유엔중군기장, 병무일지 등을 비롯하여 유가족이 애뜻하게 간직하고 있던 순직통보서, 명예제대증과 함께 탄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철모, 미 의무대 야전침대, 무전기 등 각종 군수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총 6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국군을 비롯하여 22개 유엔참전용사를 '6·25전쟁 참전용사'로 정의하고 정전협정 이후 세월과 함께 흘러가버린 이들의 흔적을 찾고 남기고자 하는 전시 기획의도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유엔에 의해 제작된 국제 군사 훈장인 유엔중군기장을 소개한다. 유엔중군기장은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한 모든 개개인에게 수여된 기장으로 전 세계에서 수집된 기장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3부에서는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수집된 자료를 소개한다. 4부는 정전협정을 이해하고 정전협정 중립국 감독 위원회(NNSC)에서 근무한 스웨덴 토르비욘 안드스트롬의 아들 오베 안드스트롬으로부터 기증받은 정전협정 복사본을 당시 뉴스 영상과 함께 전시한다.

5부 참전용사의 방은 대한민국 주둔 당시의 개인 생활 공간을 참전용사의 손때가 묻은 개인 소장품 위주로 재현한 공간이다. 전우와 함께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긴 사진 슬라이드, 낫선 이국까지의 여정을 함께한 간호장교의 수트 케이스, 본국 귀환 전 환자로부터 받은 감사선물 등 개개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억이 깃든 곳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마지막으로 흔적의 주인을 기억하다에서는 특별전 <UN참전용사의 흔적을 기억하다>의 주인공인 기증(기탁)자 100명의 명단을 한쪽 벽면에 전시한다.

김광우 유엔평화기념관장은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진행한 소장품 모으기 캠페인으로 수집된 전시물로 이루어진 첫 기증전시를 통해 6·25전쟁 참전용사와 기증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관람객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_051)901-1408 / 편집실

미쳐야 벗어날 수 있는 악몽,
현실의 탈주법

표본실의 청개구리

2023. 11. 23. ~ 25.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극단 [누리에]의 두 번째 교과서 프로젝트 작품이자 부산예술회관 상주단체로서 마지막 공연작은 한국 근대 문학 문단 형성에 공헌한 작가 중 한 명인 염상섭의 초기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다. 1921년 8월에서 10월까지 잡지 『개벽』에 연재된 이 작품에는 3·1운동이 실패로 끝난 1919년 이후 식민지 지식인이 겪는 좌절과 절망, 회의감과 현실 도피 의식 등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원작의 즐거리는 이렇다. 신경증에 시달리는 '나'(X)는 중학교 때 본 청개구리 해부 실험의 기억에 괴롭다. H의 권유로 납포에 간 그들은 3월 50전에 3층 집을 지었다는 광인 김창역을 만나고 '나'는 자유인이자 승리자인 그에게 감동된다. 한편 부모의 잇단 죽음을 겪은 김창역은 교편을 잡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다시 방랑하고, 재가를 해 잠시 안정을 찾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4개월간 감옥살이한다. 그새 젊은 아내는 집을 나갔고 정신이 이상해진 그는 기둥 여섯 개, 널빤지 두 개만으로 3층 집을 짓고 세계 평화를 위한 '동서 친목회'를 만든다. 이후 '나'는 그 3층 집이 불에 타 버렸다는 편지를 받는다. 김창역이 금강산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불을 질렀을 거라는 추측이 있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나'의 마음은 납덩이같이 무거워진다. 원작에도 실제로 '나'의 신경증 원인, 김창역이 겪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는다.

소설을 무대화를 전제로 하는 '희곡'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전 <꺼삐딴 리>(극단 [누리에] 교과서 프로젝트1, 2022. 11. 23.(수)~26.(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도 그러했겠지만, 이번 작품은 독특한 액자식 구조, 일인칭과 삼인칭 시점으로 변화하는 서술,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전개 탓에 더 어려움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먼저, 실험대 위에 놓인 개구리가 주는 악몽의 이미지를 무대에 구현하는 것은 성공적이었다. 어두운 무대와 희뿌연 조명, 무대 전체에 울리는 나레이션이 주는 음산함, 영상 효과로 연출한 개구리 형태의 이미지, 무표정하게 움직이는 배우들... 원작에서 사지에 못이 박힌 채,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이 끌어내지는데도 '아직도' 살아서 발딱발딱 움직이는 개구리의 모양새는 주인공 X의 뇌리에 깊이 박혀 끝없는 악몽과 환영의 빌미가 되고,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숨 막히는 상황 속 이물배반적인 쾌감의 이유가 된다. 머릿속 악몽과 그 피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의 근원을 시각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관객이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소설과 달리 연극은 배우의 대사와 (여의) 고정된 무대 미술, 제한적인 소품 사용만으로 모든 걸 '즉시' 보여주어야 하기에, 메스와 동일시되는 '면도칼' 등 원작의 여러 소재가 빠진 채 극이 진행되는 만큼 시각적인 설득력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도입부는 따라서, 깨고 난 뒤엔 설명하기 힘든 불쾌한 잔재만 남는 악몽을, 음악 움직임 조명 등 연출적 역량으로 잘 시작했다고 본다.

잠에서 깬 X가 친구 H와 통화하는 시점부터 연극에서 부여된 원작과 상이한 설정이 드러난다. 인물을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공포와 우울한 마음을 갖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함인지 X는 과거 언론탄압에 맞서다 옥살이를 한 기자로, H는 당시 동료이자(고문 탓으로 짐작할 수 있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현 '스포츠클' 국장으로 설명된다. 그들이 만나러 가는 사람은 후배 기자인 Y다. 소설 발표 시점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도 모든 독자가 3:1운동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한 이후기 때문에 주인공이 느끼는 우울함의 이유에 대해 따로 설정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2023년 인 현재에 와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납득될 법한 설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발표 시점에 염상섭의 직업이 신문 기자이기도 했으니 적절한 감도 있다. 어쨌든 그들의 통화 그리고 Y에게로 향하는 여정 전, 한 번 더 X의 가위눌림이 무대에 등장한다. 의자에 결박되어 괴로워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해부대에 못 박힌 개구리를 떠올리게 하고 이 시점에서 관객은 X와 개구리의 동일시를 눈치챌 수 있다.

이후 검찰 개입을 통한 언론 통제와 그에 맞서 진실을 알리고자 했으나 좌절했다는 사연이 무대를 벗어나 객석 1열 바로 앞에서 핀 조명을 받으며 진행되어 과거의 어떤 순간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힘을 실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X라는 단 한 명의 주인공을 내



세워서 진행되는 극이면 상관없지만, 사실 나중에 등장하는 김창역 또한 서사가 부여되는, 즉 두 명의 주인공 체제라는 내용(제10장으로 구성된 원작에서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삼인칭 시점으로 김창역의 이야기를 서술한다)이고, 어쩌면 김창역의 행동과 말을 통해 X가 감화하고 더한 비판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 연극에서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시대적·개인적 비극 속 절망을 겪는 인간을 낱알이 해부해 현실을 폭로하고 어떻게 하면 절망적 현실을 벗어나 자아실현 또는 인간 실현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고 원작 소설을 해석한다면, 주인공이 원하는 이상적 현실 실현의 구체적인 예

시로 ‘언론의 자유’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설정이었을 수도 있다. ‘암흑한 현실에 처하더라도 죽음이나 광증을 극복하여 과거를 넘어서야만 난세를 헤쳐갈 수 있다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힌 연출 의도를 떠올리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극의 결말에서 X가 우울감을 극복한 듯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해 소설 집필에 필요한 취재를 다니는 모습이 나오지만, 김창역의 집이 불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히 빗속을 헤쳐가는 장면, 마지막에 수 마리의 청개구리 이미지로 무대 화면이 가득 차는 장면 등을 보면 X의 현실은 아직도 일정 부분 악몽의 지배 아래 놓인 것으로 보인다. 원작 소설에서도 X가 찾는 답이 기껏해야 광인으로 표현되는 김창역의 자유와 사상이라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 ‘미쳐서 얻은 자유’ 조차 불에 타 소실되는 진정한 절망으로 향하고, 사실상 ‘무덤’인 일간두옥(一間斗屋)을 통해 ‘무거운 공포가 머리를 누르는’ 결말에 이르는 걸 보면 이러나저러나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으로 희망을 제시하긴 힘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좌절, 실패로 인한 불확실성 및 위협의 증가로 생겨나는 불안 등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를 일부러 노출해 인자·인식함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심리학적 방법이 제시되는 것처럼, 작품에서 굳이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하지 않아도 의도한 효과는 나올 거라 생각한다. 즉 X가 겪는 악몽의 원인을 언론인으로서 겪은 일련의 사건 탓이라고 제시했다면 전체 극에서 그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그저 그들의 통화나 대사에서 어렵짐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남겨놓고 김창역의 등장으로 넘어가도 좋았을 것 같다.

다시 극으로 돌아가, 그들은 후배 기자 Y의 소개에 따르면 ‘삼십오만 원으로 삼층집을 짓고 산다’는 김창역을 만난다.

이때 원작을 읽지 않은 관객 입장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보여야 하니까 벽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벽이 없다는 건지, 연극적 허용인지 설정인지를 알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삼층집'의 상태를 대사로 알려줬다면 어땠을까. 김창억 앞에서 H와 Y는 시종일관 유들유들한 태도로 농을 하고 김창억에게 군수 자리를 달라느니, 절을 하느니 하는데 그 옆에서 X만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 판 곳을 보고 있다. 그러다 김창억이 자리를 비운 후에야 그가 '광인'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듯한데 그전까지의 태도만 보면, 특히 기자정신 투철한 인물 같던 Y의 김창억을 떠받드는 행동이 과해 보여서 이게 진심인지 김창억을 놀리는 건지 아리송하다. 아마 원작을 속속들이 파헤쳐 잘 알고 있는 제작자(극단)의 입장에서 느끼기 힘든 위화감을 관객만 느끼는 것일 테다. 김창억의 미쳤으나 자유로운 속성에 X가 일종의 계시를 받듯 감화하는 부분도 조금 갑작스럽다. 김창억을 연기한 윤준기 배우가 잘 살려낸 천연덕스럽고 유창한 '강연'이 흡사 사이버 교주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이 가진 어떤 강렬한 신념의 표출 탓으로 속세를 뛰어넘은 선지자의 그것으로 보일 법하다는 설득력. X가 느낀 그 지점과 비극만이 가득한 현실에서 어차피 진정한 이상을 추구하면 미친 것처럼 보이거나 진짜 미칠 수밖에 없다는 묘한 공감이 객석에 더 스며들면 좋았을 것이다.

연극은 인생을 말하고 관객은—직접 겪는 것에 비해 훨씬 더—안전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지켜본다. 결국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저마다 다르다. 유명한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처음 상연될 때 일반 대중이며 연극 평론가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혹평한 반면에 어떤 교도소의 죄수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딱 그렇다. 연극 속 인물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제시되지 않지만 관객은 저마다의 고도를 상상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불행을 짚트

게 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며 문제들은 그제 구체적으로 무엇일 필요는 없는 셈이다. 자신의 삶에 무력할 때 장황한 꿈을 꾸어 연약한 자아를 숨기려 하듯 세계정부와 같은 음모론이 현대사회에서 심화하고 현실에 부딪힌 고학력 젊은 층이 사이버 종교에 빠진다고 한다. 이미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세상에 가득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때로는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인물 창조도 좋다고 보기에 각 인물상 제시에 너무 깊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미 제시된 인물상으로도 매력 있다. 미친 것으로 사랑받는 다크히어로 '할리퀸'(정신과 전문의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미쳤다는 설정)이 가진 속성은 김창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고 "풀 스피드의 기차로 영원히 달리고 싶다"는 X는 그야말로 '주인공' 속성이다.

[누리예] 연극의 강점으로 생각되는, 음악 움직임 조명의 조화로 강렬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낸 장면이 극장을 나선 뒤에도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 빛속을 거닐던 사람들이 일제히 청개구리로 변모해(탈을 쓰고) 돌아다니는 장면은 단연 압권이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쉽지 않은 작품을 연극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다음 교과서 프로젝트의 대상 작품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부디 이런 귀한 시도가 초연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꺼삐딴 리>와 <표본실의 청개구리> 둘 다 다음 회차 공연 소식을 언젠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효민



살아 생동하는
섬세한 미감味感

정미숙의 춤 - 그리다

2023. 12. 14.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승무 이수자로 부산에서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진 춤꾼 오랜만에 개인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 12월 14일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에 올린 '정미숙의 춤-그리다'이다.

정미숙은 동래여고 무용반 활동을 시작으로 춤길에 들었으며, 김진홍 선생에게서 본격적인 춤공부를 시작했으며, 대학 진학 후에는 최은희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창작에 입문하였다. 그런 가운데 각 지역의 다양한 민속춤까지 공부했으며, 이후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우봉 이매방 선생과 김명자 선생에게 사사하며 춤의 깊이를 더하며 지금 춤에 큰 영향을 받았다.

전통춤과 창작에서 다채로운 경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중진 춤꾼인 정미숙은, 경성대학교 배김새 회장과 경상국립대학교 민속예술무용학과 출강, 그리고 영남

진석

춤학회 부회장과 금정무용협회 회장으로 지역 무용 발전에도 힘을 쏟으며 끊임없이 춤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공연에 앞서 오랜 시간 우봉 이매방 문하생으로 올곧게 전통춤의 공력을 저버리지 않고 풀어내며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고 하였던 스승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인사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정미숙은 이매방류 〈승무〉를 원형으로 무대에 올리며 인고의 춤시간을 차분하게 풀어놓았다. 원형의 춤빛이 희석되지 않는 범주에서 정미숙만의 색을 더하고 단백하면서도 덜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의식성을 갖추었다. 섬세한 춤사위를 통해 정제된 내면과 민들레 꽃씨처럼 휘날린 장삼은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락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집중도를 높여 승무의 기품을 보여주었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화려한 조바위에 치마저고리 그리고 무동복에 얹은 갑사의 너울거림은 몽클한 울림으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선물처럼 와닿았다. 허공을 가르며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맺고 푸는 호흡의 깊이는 다른 화려한 작품보다 내적으로 집중하는 춤으로, 다져지고 삭혀지고 영겨졌다 다시 풀어지며 단단하게 보였는데 이매방 선생님의 춤사위와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르게 보여졌다.

이번 공연에서 정미숙은 2개 작품을 재구성했다. 먼저 조흥동류 〈진쇠춤〉은 재인청 전래의 진쇠춤 장단인 경기 무악의 장단과 흡사하며 장구가락과 쇠가락의 절묘한 조화로 춤과 가락이 서로 주고 받으며 전개된다. 춤의 기품을 군더더기 없이 펼친 정미숙은 흥에 겨워 미소가 살짝 배어나다 다시 장중함을 무대에 펼쳐 놓았다. 자유롭게 여러 감정을 담아내었으며, 코발트블루 의상만큼 선명한 박자감의 마무리로 흥을 돋우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미숙이 재구성한 두 번째 작품은 권명화류 〈소고춤〉이다. 장하나 이담희 두 명의 제자가 춘 권명화류 〈소고춤〉은 농사와 살림살이에서 따온 생활동작을 춤으로 형상화해 수제비 빚기, 그네타기, 실패감기, 땅다지기, 씨뿌리기, 모심기 등 재미있고 흥이 넘치는 동작들로 구성돼 있다. 너울너울, 춤의 특성을 잘 살린 두 젊은 춤꾼의 춤에 신명이 가득했다.

모처럼 열린 정미숙의 춤판을 축하하고자 김미자와 이호준도 마음을 보탤다. 무대 상·하수에서 왕과 왕비로 등장한 두 사람은 강선영류 〈태평무〉를 찾다. 걸걸음 잔걸음 뒤꿈치 끌기 등 기교가 까다로운 춤인 〈태평무〉의 호방함과 엄숙미에 화사한 분위기가 더해져 춤맛을 즐기게 했다.

춤판에 소리가 빠질 수 없다. 소리꾼 김진아는 최정옥의 장단에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주었다. 이 대목은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 심봉사와 재회하며 다시 살아온 딸을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눈을 뜨는 장면이다. 슬픈 곡조에서 점차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절정으로 나아가는 소리에 흥이 나며 절로 눈과 귀가 집중했다.

송유당에서 열린 이번 정미숙의 춤은 전통 본연의 가치를 지니면서 절제미와 그에 걸맞은 호흡과 평온함으로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같은 춤과 장단이라도 예인이 가진 향기는 각각 다르게 피어나며 너울대는 긴 장삼만큼 오랜 여운을 남겼다.

글_이경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2023 이바디예술단과 함께하는 소리의 향기 [二打]

2023. 12. 14.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겨울비가 내리는 12월 14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이바디예술단] 공연을 보았다. '잔치' 또는 '연희'를 뜻하는 우리 말을 단체명으로 쓰는 [이바디예술단]은 잔칫날처럼 흥겹게 우리 음악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즐기는 마당을 마련하고자 1994년 창단했다. 최의철 단장을 중심으로 판굿, 풍물놀이, 사물놀이, 난타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자로 구성된 [이바디예술단]을 필두로 모든 면에서 기둥이 된다는 의미의 타악 전문 동아리 '이바디 다림줄', 순수하게 전통을 사랑하는 단원들로 이루어진 '이바디 한얌', '이바디 흥+1울림', '이바디 악동들'로 구성돼 있다.

공연은 '이바디...만남과 인연'을 주제로 크게 비나리, 설장구, 사물놀이, 윷다리풍물, 난타, 판굿, 그리고 민요로 프로

그램을 구성했다. 타악을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준비한 이번 공연에선 어떤 연희를 펼치며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줄지 사뭇 기대가 되었다.

이바디예술단의 <비나리>가 첫 문을 열었다. 비나리는 고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로 사물의 가락 위에 축원 덕담, 천지개벽, 살풀이, 액풀이 등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아 부른다. 비나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관객들은 무대로 올라가 고사상에 돈을 올리고 절을 한다. 2023년 침단의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우리 문화가 때로 어색하지만, 관객들의 진지한 표정과 합창에선 무사와 안녕을 회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설장구는 원래 농악에서 장구잡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농악을 치는 판굿에서 우두머리

인 설장구가 나와 개인의 기량을 뽐내거나, 상쇠와 돌이 놀이판 가운데서 서로의 가락을 주고받으며 놀던 놀이다. 요즘은 앉아서 하는 앉은반 설장구와 장구를 매고 장구 가락과 율동을 하는 선반 설장구로 연주되고 있다. 오늘은 단원들이 앉은반 설장구를, 이바디 다림줄이 선반 설장구를 펼쳐 보였다.

사물놀이는 마당에서 진을 짜고 어우러지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길놀이를 중시하던 풍물에서 네 개의 타악기 쟁과리, 징, 장구, 북을 무대화시켜 재구성한 것이다. 쟁과리 소리는 천둥, 징은 바람, 장구는 비, 북은 구름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에서 이바디예술단은 진주·삼천포의 풍물 가락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의 가락을 정리한 영남사물놀이를 선보였다. 풍물(風物)이란 쟁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사물)와 나발, 태평소, 소고 등의 악기가 기본 구성이다. 풍물의 종류는 경기/충청지방의 '웃다리풍물', 영남지방의 '영남풍물', 호남지방의 '호남풍물'로 지역에 따라 나뉜다. 이바디는 모내기나 김매기 등 농사일을 할 때 힘들을 털어주고 힘을 내고 흥을 돋우기 위해 하는 놀이를 지역의 특징적인 장단과 판굿이 만나 좀 더 짜임새 있는 풍물로 발전시킨 <웃다리풍물>을 놀았다.

소극장이 들썩일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히기 위해 최의철 단장과 초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소리꾼 김예빈이 무대에 섰다. 소리꾼은 「홀로아리랑」 「동백타령」 「신고산타령」을 들려주며 악기 연주와는 다른 우리 소리의 매력을 전했다.

이어진 <난타>에선 8명의 연주자가 나와 처음에는 우리 전통 장단을, 두 번째는 대중가요 「남행열차」에 맞춰 대북을 두드렸다.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마치 무대 위 연주자가 된 것처럼 우리 가락을 함께 즐겼다.

마지막은 풍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판굿>이다. 판굿은 걸립패와 남사당패가 연행하던 음악과 놀이로 전반부에는 쟁과리 소리에 맞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열을 지어 움직이는 진법놀이를 벌이고 후반부에는 상쇠놀이·설장구놀이·소고놀이·긴 상모를 돌리는 열두발 상모와 같은 개인놀음을 진행했다. 언제봐도 흥겨운 무대다.

주최측이 준비한 마지막은 <풍물>이었지만, 이날은 마치 앙코르 공연처럼 신명이 로비까지 이어졌다. 잔칫날은 모두가 주인공이듯이 연주자와 관객의 즐거움이 모여 흥을 돋우고, 그 흥들이 모여 새로운 하나가 되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바디예술단의 마음이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진 공연이었다. 타악의 두드림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체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실수도 격식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여서 즐거운 이바디의 따스함이 오랜 여운으로 남겨졌다. 우리 지역에서 소중한 전통예술단체 [이바디예술단]의 두드림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본다.

글_김명수 가야금연주자





2023. 12. 9. ~ 10.
KT&G 상상마당 부산



부산 책방과 창작자 친구들이 만드는 작은 이야기들의 축제 '제 1회 마우스 북페어'가 열렸다. 작가와 책방, 출판사와 예술가, 직장인,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여행가 그리고 사진사들까지 전국에서 모인 125팀의 독립출판 창작자가 만든 200종이 넘는 작품집을 만날 수 있다. 올해의 테마는 '우리들의 첫 책'이다. 독립출판 창작자는 첫 책에 관한 기억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독자와 관람객은 생애 첫 번째 책을 만들어보거나 꿈꿀 수 있는 자리로 남고자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독립출판 세계에서는 작고 소중한 이야기일수록 빛나는 콘텐츠가 된다. 작고 소중한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떠올린 이미지는 생쥐였다. 창작자와 독자 모두에게 '책 만드는 생쥐들의 근사한 축제'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북페어는 부대행사로 창작하는 마음을 가꾸고 지키도록 도와주는 18개의 강의와 워크숍을 준비했다. △손현년 작가 △삐약삐약 출판사 △김보희 출판편집자 △더플락 서점 △안리타 작가 △태재 작가 등 독립출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창작자의 강연과 함께 △수제종이 만들기 △미니 북 키링 만들기 △인스타툰 그리기 △반려동물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관람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를 마련하고 기분 좋은 관람을 돕는 팁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페어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시야를 넓히는 데 있다. 부스를 지키는 작가들에게 책 소개를 부탁하고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눠본다.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표정과 감탄사로 기뻐하고, 북페어에 처음 참가하는 작가를 만나면 축하해주기를. 필요한 것들을 사러 왔다

는 느낌보다, 이번 주말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이야기와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다고 했다.

독립출판물의 형태는 종이책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으로 연결된다. 제주도에서 1인 독립출판을 하는 위아파랑(김채리) 작가는 신작으로 2024년 달력에 직접 쓴 초단편소설을 삽입하는 형식을 선택했다. 그는 독립출판물의 매력으로 “기성 출판사에서 할 수 없는, 나의 상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북페어를 계기로 첫 책을 출판한 바라보아 팀은 음반 형태로 책을 제작했다. “첫 개최지만 독립출판물계에 막 발을 내디딘 창작자들에게 마우스 북페어는 든든한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운영팀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와서 오후 3시 30분까지 마우스 북페어를 흠뻑 즐겼던 한 방문객은 타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도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평소에 독립출판물에 관심이 많아서 부산에서 첫 독립출판물 페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다고. “독립출판물은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기분을 들게 해줘요. 북페어를 통해 저의 또 다른 취향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마우스 북페어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북페어를 떠나기 전, ‘오늘의 소감’을 적는 코너가 있었다. 운영팀에게 칭찬해 주고 싶은 점, 오늘 만난 인상적인 창작자(팀)를 묻는 질문, 당신의 첫 책(다음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까, 오늘 산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등 각자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적어 벽에 붙이던 형태였다.

한편, 매년 꾸준히 개최할 수 있도록 마우스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고 있다. 마우스 북페어는 공공기관이나 문화재



위아파랑 『파랑의 계절』



홍시 『이상일틈』

단, 또는 대기업 자본 등의 후원 없이 오직 운영팀 개인 비용과 '부스 사용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사다. 부산에서도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대규모 독립출판 북페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펀딩에 참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우성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은 출판을 제조업에 비유한다. “지식 정보의 맨 밑바닥은 출판 행위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없애면 IT 산업이 남아나지 않듯, 출판은 가장 밑바닥 공정에 해당한다. 떠돌아다니는 지식을 체계화해서 책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문화가 쌓인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출판물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구가 된다. 표현의 자유와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독립출판물 페어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마우스 북페어가 그 발판이 되길 희망해본다.

글 이지윤



YOUNG CREATOR'S ART MARKET 2023
디그리쇼

2023. 12. 5. ~ 17.
동구 문화플랫폼

1

예술계 대학생 연합전시 '디그리쇼'가 동구 문화플랫폼에서 열렸다. 디그리쇼는 영국 런던, 스코틀랜드 등에서 유래한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졸업 전시를 의미하는데, 미술 컬렉터와 애호가, 갤러리 등이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예비 전시로 열린 '디그리쇼 with 부산콘텐츠마켓 BCM 2022'(2022. 6. 8. ~ 10. 백스코 제1전시장)에 이은 본전시 '2022 디그리쇼'(2022. 12. 5. ~ 11. F1963 석천홀)의 성공적인 개최 결과, 몇몇 학생들은 제12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에서 특별전 참가 기회를 얻어 다수 작품의 판매가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는 경성대 동아대 동이대 신라대 등 지역 예술대학의 졸업 예정 대학생 130여 명이 참여해 280여 점의 한국화와 서양화, 입체, 디자인, 영상 콘텐츠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졸업 사정을 위해 준비하는 100호 이상 작품 외에 작은 규모의 작품을 별도로 기획, 창작하여 출품함으로써 전시장을

을 찾은 관객들이 큰 부담 없이 청년 작가 작품의 첫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었다.

좋은 지산학(地産學)의 실례라 평가받는 디그리쇼를 만든 건 비영리 민간단체 디그리쇼한국위원회(의장 이상호-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장)다. 일선의 교육자들이 그들이 가르친 학생의 미래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이상호 교수에 따르면 "졸업 후 작가가 되는 숫자는 서너 명에 불과"하다.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갤러리를 만나 전시를 성사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탓이다. 고민 끝에 졸업작품전의 규모를 키워 일종의 아트페어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는 "지역소멸 문제에 맞서 청년들이 해낼 수 있도록, 상업 시장을 만나고 작가의 길을 시작하게 돕는 것"이 디그리쇼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화랑협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예술 대학 졸업생에게는 사회 진출의 발판이, 예술계에는 신예 작가 발굴의 기회가 되어 예술계 선순환을 대표하는 '아트마켓'이 되는 디그리쇼를 기대한다.

문의_010-6656-8466 / 편집실

1 이도영(신라대) Dream cleat_FRP, 180.0×85.0×50.0cm, 2023

2 표연주(동아대) light of the night_Mixed Ingredient on Canvas, 37.9×37.9cm, 2023

3 신수항(동의대) 흰수건그리고 여러동절한 아이들_Oil on canvas, 116.8×91.0cm, 2023

4 황영록(경성대) 시아_Ink on Korean Paper, 60.96×40.64cm, 2023

5 김태희(경성대) 일체유심조_Watercolor, Paper, Glue, 116.8×91cm, 2023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師第同行 프로젝트VI

춤-바라보다

2023. 12. 14.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사제동행 프로젝트는 부산여자대학교의 [BWC 댄스컴퍼니]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춤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며 춤 문화를 선도하고 다채로운 춤 언어를 생산하고자 201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6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주제는 '춤-바라보다'로 그동안 춤을 통해 훨훨 날고, 춤을 톺아보고 함께했다면 올해는 춤을 통해 서로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장의 열기는 1600석 규모의 시민회관 대극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뜨거웠다. 공연 내내 관객들의 열띤 응원과 따스한 호응이 이어졌다. 공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으며 무대를 정리하는 도중에도,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공연에서 벌어질 때도 박수로 따스한 위로를 전했다.

1부 공연의 포문을 여는 첫 무대는 한국무용 <부채-光>(안무 김해성)으로 꽃송이와 파도를 표현하는 부채의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이 되고 하나의 선율이 되는 모습을 형광의 색채에 녹여내 판타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부채춤 공연이 끝나고 사회를 맡은 김해성 교수가 무대 하수에서 나와 공연을 보러 와준 관객들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관객들의 열정 넘치는 응원이 무용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시울을 붉히게 했으며, 무용수들이 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고 춤에 정진하는 태도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기며 이어지는 공연을 소개했다.

한국무용 <생과 사>(안무 학생 노지원)은 인간이 생과 사에서 번뇌하는 모습을 탈이라는 수단을 통해 묵직하게 표현했다. 뿔과리에서 너풀거리는 천을 너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람에 흩날리듯이 우아한 몸짓을 보여준 한국무용 <너슬-風>(안무 김선영)은 김선영 교수와 함께 평균 연령 50대의 만학도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춤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너슬-風>의 무용수들이 무대 하수로 퇴장하면서 자연스레 무대 상수에서 교차하여 박수일 무용수가 등장했다. 1부의 마지막 무대는 한국무용 <서한우流 버꾸춤>으로 버꾸춤은 전라남도 해안지역인 완도의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 놀이에 속해 있던 것을 서한우 명인이 무대 버전으로 완성한 춤이다. 버꾸는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고보다는 큰 중북으로 끈을 이용해 손목을 거는데, 창원시립예술단 상임 단원 박수일 무용수가 홀로 신명 나는 춤판을 벌였다.

2부 스트릿댄스 <Mirror: Find one's inner self>(학생 공동 안무)로 2부의 시작을 알렸다. 21명 대규모 출연진이 나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흐트러진 내면과 외면을 마주하고 들여다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연은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해외 유통 지원의 첫 사례가 되어 인도네시아 초청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기도 했다. 플라멩코 <옴팡>(안무 이영자)은 소리 이현호, 기타 김동욱, 퍼커션 김상봉, 보컬 최하나가 펼치는 선율에 이영자가 스페인 종합예술 플라멩코를 독무로 추는 공연이다. 이영자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테크닉과 스페인의 짙은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석에서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다. 이어 현대무용 <They Live>(안무 하주원)는 Hannah Jadagu 「Warning Sign」, Sampa The Great 「Shadows」를 배경곡으로 삽입하여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형태의 감정들을 감각적인 몸짓으로 표출했다. 벨리댄스 <Legend of pop>(안무 신유정)은 전 세계가 사랑하고 열광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곡을 메들리 하여 벨리댄스로 퓨전화한 작품으로 벨리댄스에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춤을 녹여내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었다.

힘찬 여정의 막을 내릴 공연은 스트릿댄스 <Space>(안무 서택구)였다. 오늘 공연 중 가장 많은 출연진(25명)이 등장하는



2



3

무대로 공연명에 걸맞게 의자를 오브제로 이용하여 공간을 느끼고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선보였는데 초반의 장면은 스트릿댄스보다는 현대무용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락킹, 왁킹 등 손을 이용한 스트릿댄스 장르가 돋보였으며 감성적인 시티팝은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 했다.

커튼콜 때, 서로를 격려하고 관객석을 향해 환한 미소를 띠는 무용수들의 모습을 보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눈물과 땀으로 연습 시간을 보냈을 그들의 노력을 상상해 봤다. 부산 대학의 무용과가 쇠퇴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춤 언어를 꾸준히 선보이는 그들의 태도는 참으로 아름답다. 20대 제자부터 50대 스승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오직 '춤'을 매개로 하나 되어 펼친 춤 언어가 관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일렁이는 감정으로 와닿았길 바랐으며 앞으로 춤의 매력을 많은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올곧은 길이 그들 앞에 놓이길 소망한다.

글_이지윤

1 <부채-光>

2 <Mirror: Find one's inner self>

3 <옴팡>



고은사진미술관
+ KT&G 상상마당

올해의 작가전
서동신
조준용
조진섭

~ 2024. 2. 18.
고은사진미술관

1 ©서동신, Equation, 2021
2 ©조준용, Glass City, 2023
3 ©조진섭, G의 나라, 2022

사진 전문 미술관 고은사진미술관은 2012년부터 KT&G 상상마당과 연계해 사진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작업의 완성도와 실험정신을 갖춘 신진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 사진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고은사진미술관과 KT&G 상상마당(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가 미래의 한국사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작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올해의 최종작가'로 선정된 서동신과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조준용, 조진섭의 작품을 소개한다.

사진 매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서동신은 사진이 사진 예술로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의 'Equation'은 대상을 포착하고 촬영하는 것이 아닌 이미 촬영된 이미지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진 촬영 이후 디지털 작업을 거친 그의 작품은 사진의 본질인 지시적 특징을 넘어 이미지 자체의 미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의 크기, 위치 등을 이용해 서로 가리거나 방해하는 「Equation」, 특정 색상을 삭제하고 이미지를 겹쳐 표현한 「Cacophony」, 반복적 패턴을 통해 두 이미지를 분할, 중첩시키는 「Arithmetic」으로 구성된 3개의 시리즈를 선보이며, 'Equation'이라 통칭한다. 추상적이면서 기존의 형상이 남아있는 사진은 보는 이들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열린 감상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조준용은 사진작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촬영된 네 개의 연작을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하며 시간-이미지를 공간-이미지로 확장한다. 낮에 달리는 차에서 촬영한 「Glass City」는 장소성과 방향성이 모호한 도시의 찰나적 순간을 기록했다. 운전이라는 행위에 의해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결과물이다. 밤 길거리에 세워진 파손된 차량을 촬영한 「Motor Collection」과 서로 다른 시간-이미지로 대립한다. 그리고 출발과 도착 사이 어딘가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Speed Way」와 무수한 흔적이 남아있는 자동차 운전학원을 기록한 「Circuit」 두 연작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이미지를 사유한다. 이 네 개의 연작이 하나의 시퀀스로 완성된다.

난민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조진섭은 다양한 방식의 기록으로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을 기록한 프로젝트 「G의 나라」를 선보인다. 10살 때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G'의 일상을 촬영한 작업으로 'G'



는 그녀의 중간 이름인 Gracious의 약자이다. 'G'와 가족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기록한 사진과 더불어 그녀가 한국에서 살면서 겪은 일과 불안한 감정을 담은 텍스트와 함께 보여 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의 기록과 함께 스튜디오 촬영, 오브제 등을 활용해 다큐멘터리의 지평을 넓힌다.

고은사진미술관의 이번 올해의 작가전은 각자의 작업방식은 다르지만 젊은 감각으로 사진의 속성과 정체성에 대해 섬뜩이 질문하고 답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사진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물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의_051)746-0055 / 편집실



장인영_전통의식의 재해석(십장생), F50

제65회 부산시문화상 수상 기념전 장인영 '삶의 형이상학'

2023. 12. 5. ~ 10. 금련산역갤러리

원로 화가 장인영 작가의 제65회 부산시문화상 수상 기념전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열렸다. 5일 열린 개회식에는 도동복 부산시문화상 수상자회 회장,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등 여러 미술계 인사들이 자리해 기념전 개최를 축하했다.

장인영 작가는 부산시 일원의 고등학교와 부산여자대학교에서 32년간 교직에 임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했고, 미술을 포함한 학술논문 11편과 저술 5권 집필 외에 70여 편에 이르는 미술평론으로 지역 작가들의 활동에 힘을 실었다. 국내외에서 20회가 넘는 개인전과 350여 회의 단체전을 하며 미술 작가로서 꾸준히 활동했고 현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미술단체 [군록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없는 한국 고유의 독창적이고 대표적인

작품인 십장생+長生을, 그림에 나타나는 오방색을 서양화 방식인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이면서 해외의 주목을 받았는데 독일 하노시 국제문화박물관(풍차박물관)에서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한 십장생도'로 2개월 동안 개인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1957년 제정돼 부산의 문화예술이 부흥할 수 있도록 수십 년간 정진한 이에게 수여하는 부산시문화상(시각예술)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시작한 일이 어느덧 노을 진 언덕에 서 있음을 느낀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2022년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한 벽찬 기쁨과 시민들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그동안 그려온 창작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이라며 기념전 개최 소감을 밝혔다.

/ 편집실

서예 한길을 걷은 초정 김석호 개인전

2023. 12. 18. ~ 23. 연제문화원 솔갤러리

초정 김석호의 세 번째 개인전이 연제문화원 솔갤러리에서 열렸다. 서예 작품과 함께 전각서각 작품이 전시되어 복합예술로서 서예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한 자리였다.

김 서예가는 1983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하며 본격적으로 서예를 시작했지만 그 처음은 초등학교 때 부친에게서 받은 붓 한 자루였다. 전기공학 석사과정까지 수료한 공학도였음에도 서예 한길을 걸었고 서예가로서 서도를 실천하며 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화선지에 먹으로 또는 감지에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로 글을 쓴 작품, 가죽나무에 서각을 하고 금니를 입힌 작품, 해남석 등에 전각을 새긴 작품 등 형태도 빛깔도 크기도 다양하다. 빼곡하게 쓰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경구, 송강 정철의 한시(漢詩)부터 구전동요와 고사성어까지 인간의 도리와 옛사람의 지혜, 전해온 이야기들이 그의 손에서 작품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단순히 종이에 글을 적은 것으로 아는 서예에 가진 무지의 편견을 반성케 된다.

이번 개인전 도록 말미에 그는 “타고난 재주가 있구나, 칭찬에 고취되어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그래도 청운의 뜻이 안타까워 또 먹을 갈아본다”고 솔직한 몇 마디 말을 실었다. 자기 할 바를 다 하고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의 ‘진인사대천명(眞人事待天命)’은 그의 좌우명으로 알려져 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행위만이 아닌, 생활에서 선을 실천하는 수행 행위이기에 ‘서도’라고 한다는 그의 마음이 묵향으로 전해오는 듯하다.

/ 편집실



海印圖_감지에 금니, 35×30cm







a year



희망의 해

일출을 촬영하는 건 자연과 깊은 공감을 형성하는 행위이며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카메라로 기록하는 일이다.
몇 년에 걸쳐 찍어도 셀레임과 기대의 감정은 매해 새롭다.
새해는 모든 게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과 기원을 담아
떠오르는 해를 카메라에 담아본다.

글·사진_강종관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of hope

時雨일기

일력

대문 밖, 오토바이가 멈춘다. 좁고 구불거리는 농로가 일의 현장이 되는 까닭에 발 빠른 오토바이가 열일을 해주는 곳이 시골이다. 웬만한 농가라면 한 대쯤은 거느리고 있는 데다 전기검침원이나 우편배달부들까지 바이크족에 동참을 한다. 무시로 고삐를 흔들고 가는 오토바이의 굉음도 일상의 소리려니, 무덤덤하게 산다.

우편물이 도착한 모양이다. 터 잡고 서너 해를 넘기고서야 집 안에 들앉아서도 밖을 읽어내는 실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날마다 귀에 담다보니 엔진소리부터 속도감, 운전 스타일로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아나니 다를까. 거실 창을 통해 뺨뺨 바깥을 내다보니 빨간 사각의 우편물 수송 박스를 실은 오토바이의 꿈무늬가 뒷집으로 훑하니 내뺨다.

훑훑 털고 왔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세상으로 남겨둔 꼬리가 있어 자주 책이 배달된다. 자그마한 새의 집 같은 우편함이라 책은 늘 지붕 위에 쌓이곤 하는데 오늘은 그마저 여의치 않은 무언가가 도착을 했나보다. 배달부가 머문 시간이 평소와 다른 걸 보면. 그러면 그렇지, 둘둘 말린 달력 한 권이 우편함의 아가리에 빼떡하게 꽂혀 있다. 겨우 낙상을 면한 저 위태한 기울기를 찾아내기 위해 귀한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 게다.



포장지 위로 L선생의 이름 두 글자가 빠르게 보인다. 야무지게 시뮬 테크를 하는 분답게 때맞춰 새해를 마련하신 모양이다. 허와 실이 더 많은 내 일상을 눈치 채신 건 아닌지 괜스레 뜨끔해진다. 보내 주신 삼백 예순 다섯 날을 아껴가며 잘 쓰겠노라고 답을 드렸지만, 솔직히 장담을 할 수는 없다. 해마다 받아드는 선물의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빚금을 곳듯 충실하리라는 다짐은 늘 작심삼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곤 했으니 말이다.

이사 후 한동안은 컴퓨터 옆 탁상용 달력을 애용했다. 무나 배추, 상추, 시금치, 마늘, 양파, 고추 등 자급자족을 위한 텃밭 작물들의 생장일기를 적어두는 용도였다. 언제 거름과 토양살충제로 파종을 예비했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 씨를 묻고 추비를 했는지, 거기다 수확을 시작한 날짜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머드리거나 슈아내고 적심을 한 날도 빠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었다. 장을 담그고 거른 날, 김장을 한 날, 각종 장아찌와 청을 담가 둔 날까지 구석구석 메모를 해두었다. 귀찮기는 했지만,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참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일사천리 춘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일일이 주변을 걸논질하거나 우매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모양 빠지는 일이 더는 필요치 않으리라. 나름으론 야심찬 작업이었다.

그러나 웬걸.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에는 돌발변수가 많았다. 하늘과 땅과 비와 바람이 부리는 조화 때문이었다. 이럴 때는 이리하고, 저럴 때는 저리 대처하는 순발력은 오랜 경험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결국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참고서와 상관없이 이것도 허둥지둥 저것도 허둥지둥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다섯 번의 해가 바뀌고 있지만, 매해 처음처럼 초보를 외쳐야 하는 이유다.

도시에 있을 땐 달력의 용처가 별로 없었다. 가족들의 생일이나 제사, 기념일을 비롯하여 수시로 생겨나는 스케줄은 내 손 안의 해결사인 휴대폰이 재깍재깍 알려주곤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해주는 기계가 더 없이 편했다. 용불용설 앞에서 나의 무엇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일말의 두려움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출발선에 선 주자의 땀방울이 머리카락처럼 한 해의 시작을 위한 준비물이랄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있다고 해도 그다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달력의 존재감이었다. 네 귀퉁이 반듯한 달력은 제대로 된 눈맞춤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덩그러니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내다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제 살을 찢어내며 퇴물이 되어 갔다. 그마저도 디지털 시대에 처한 아날로그의 운명이라 농치고 말았다.

반면 이곳은 달력이 요긴한 환경이다. 그것도 음력이나 24절기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매달의 농사용 팁까지 적어놓은 친절할 달력은 맹인 문고리 잡듯 더듬더듬 살아내는 내게는 금상첨화다. 그 모두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달력은 농협이나 축협, 인근의 종묘상에서 제작한 것이다. 주요 고객의 니즈needs에 최적화 된 그 달력들은 새해가 되면 한두 개 정도는 손에 들어온다. 지역민을 위한 업계의 서비스 차원이겠지만 처음에는 뒷전으로 밀쳐놓고 허드레의 용도로나 사용했다. 최소한 달력이라면 멋진 풍경이나 예술작품의 화보 정도는 전시를 하고 있어야 장식용으로라도 쓰임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집집마다, 하다못해 동네 사랑방에도 서른 즈음의 숫자로만 도배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나도 종종 숫자 큰 달력의 씹씹이를 수궁해야 할 일이 생기곤 했다. 바둑판처럼 칸이 질러진, 달력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한 달력은 멋도 운치도 없다. 그러나 내용만은 제법 실하다는 게 요즘의 내 평가다. 일상이 바뀐 만큼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라고. 그보다 더 요긴한 달력이 있다면 이웃 어른들이다. 아니, 그분들을 일러 소중한 일력日曆 정도로는 칭을 해드려야 맞겠다. 매일 아침 그날의 해야 할 일이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자연의 추이에서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경우가 많다.



아카시 꽃이 하얗게 필 때면 마늘을 캐고 참깨를 심는다. 처서 근방에는 무나 배추를 비롯한 온갖 가을 채소를 심어 김장을 준비한다. 엇그제 어느 하루는 메주 만들기에 적합한 말날이라며 푹푹 콩을 삶아대느라 아궁이 앞이 부산했다. 그들의 바쁨에 동승을 했다가, 나 홀로 빈둥거사가 되었다가... 반나절 꺼리도 못되는 일에 하루 이들은 곱다시 붙들려 있어야 하는 나로서는 매일 매일이 스펙터클할 수밖에 없다.

일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한하다. 구름이 구박산을 지나 '깊은골'로 물려가거나, 때 없이 하루 살이가 창궐하면 비가 올 징조란다. 짙은 안개로 우왕좌왕 시작하는 아침이면 '중(中) 머리 벗겨질' 만큼 햇살 좋은 날이 펼쳐질 것이므로 젖은 것을 내다 널라는 지령이 떨어지고, 선부르게 봄을 외치며 출썩거리는 내게는 보리누름에 중늪은이 얼어 죽는 법이라며 슬쩍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도 한다. 비 문은 구름이니, 비 올 바람을 읽어 내는 일도 그들로 하여 조금은 가능해졌다. 그리고 보면, 백발에 주름투성이인 일력들 덕분에 그럭저럭이라도 하루치의 안위를 챙길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들 그들, 일력의 유효기간이 문제다. 납작한 종이달력처럼 해마다 다시 태어나거나, 휴대폰 속의 캘린더처럼 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언제까지나 팔순 안팎의 일력들께 의지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두어 달 전에는 세 분 중 한 분의 일력께서 삶을 접으셨다. 그리고 한 분은 평생기기의 타계로 만사가 귀찮은 눈빛을 하고 계신다. 결국 스스로 일력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지만, 글썩하다. 다섯 해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방대함을 어느 세월에 일거수일투족으로 쟁여놓는단 말인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끄집어내는 경지는 요원하기만 하니, 가끔은 위기의식마저 든다.

배달된 달력을 펼치자 인쇄내가 등천을 한다. 열두 장의 달력, 손 타지 않은 미지의 하루들이 묵직하게 읽힌다. 내 황망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리 굽은 일력 한 분이 헛기침을 앞세우며 마당으로 들어서신다.

클_문경희 수필가



우릿한 감동을 주는 연극

연출가 강인정

- 극단 [우릿] 대표
- 연극 <첼로와 케첩> <밧줄>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만날 때> 외 연출
- 연극 <우리 집에 왜 있니?>
<갈대가 타서 재가 되고, 바람이 불어 사라지다>,
실험극 <리처드3세~100세> 외 작/연출
- 2023 제6회 작강연극제 한형석 연출상 수상

‘우릿하다’라는 말이 있다. ‘깊고 진한 감동을 느껴 떨리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전원 90년대생으로 구성된 극단 [우릿]은 바로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 2018년 창단했다. 그리고 2023년 제 6회 작강연극제에 참가해 대상, 한형석 연출상, 우수연기상 (강우혁 배우) 3관왕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렇게 만난 [우릿]의 대표, 강인정 연출가는 분명한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로 보였다.

“상을 하나라도 받는 게 목표였는데 이뤘다”고 기뻐하던 시상식에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상을 받고자 한 이유는 단순하다. 극단 운영에 중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극단의 이름을 알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다. 영산대학교 연기 뮤지컬학과 졸업 후 공부를 이어가려던 강 연출가를 붙잡은 건 함께 극단을 꾸리고 있는 동료 겸 선배들과의 관계다.

관객과 스태프, 배우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을 원했던 그 이기에 현실 무대에서의 공부를 택한 것도 같다.

작강연극제 대상작 <악연-스무 번째 생일 소원>(이하 악연)은 사실 강 연출가 본인이 배우로 출연했던 여성극을 남성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출연한 3명의 배우가 직접 “하고 싶다”고 가져왔고, 연출로서 최선의 도움을 다하는 방식으로 몇 달의 준비 과정이 흘렀다. 그는 연극은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예술’이어야 한다는 관점이지만, 연출가로서는 ‘보여주는 방식’의 문제에 집중하는 편이다. 캐릭터 역시 어떤 해석으로 관객에게 보여줄지 명확히 하기 위해 배우와 끝없이 의논한다. 이번 작품의 경우엔 곰인형 ‘패런’이 그러했고, 자유로운 역할로 남길 바란 연출가의 의견에 배우도 공감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가 부친을 살해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무거운 주제를 담은 극에서 패런은 주인공의 망상과 현실이라는 이중 구조 위를 뛰어노는 일중

의 '조커'처럼 제 역할을 다했다.

창단 초기에 주로 실험극을 하던 [우릿]은 최근 좀 더 일상적인 주제와 무대를 다루고 있지만 이번 <악연>에서 주인공의 망상 자체가 무대미술에 구현됐다거나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등 심리적 사실주의극 Psychological Realism의 경향이 느껴졌는데 아나나 다를까, 강연출가가 유진 오닐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연출가 개인의 취향을 따랐거나 또는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 두 갈래는 가끔 다르고 가끔 겹치지만 언제나 연출가의 영향력 아래 만들어지니 말이다.

그의 희곡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떠오르는 문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현재 그의 머릿속에 '전신주 사이로 조각난 하늘'이라는 문장이 있다는 말에 언젠가 이 문장이 구현된 작품을 만나겠구나, 했다. 무대에 세워진 길쭉한 기둥 두어 개 사이로 검은 줄이 이리저리 이어져 있고 회색 건물을 나와 티덜티덜 걸어가는 어떤 사람, 웬지 시간대는 저녁늘 무렵,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일 것만 같다. 공단이 모여 있는 금사동에 극단 사무실 겸 연습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떠오른 상상이겠지만 훗날 그의 작품에서 이 문장의 편린을 만난다면 반가울 것이다.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조곤 조곤한 목소리로 말하는 연극과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좋았기 때문이리라.

처음 희곡을 쓰기 시작한 건 극단을 만든 뒤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으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방법의 하나가 됐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쓴 <우리 집에 왜 있니?>, 마음껏 웃으며 보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는 <미모의 비법>, 현실의 벽 앞에 계속해서 작아지던 한 작가가 '돈키호테'를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자존감이 깎여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작은 미소 한 자락을 주고 싶었다는 <돈키호테: 미치거나, 즐기거나> 등 사람을 말하는 이야기다.

언젠가 "연출은 서른다섯부터 시작이다"는 말을 들었다. 어쩌면 그전까지 무모한 도전을 해도 된다는 뜻도,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도약에 시간을 쓸 수 있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 일단 다음은 뮤지컬 도전이다. 3차세계대전 무렵을 시대적 배경으로 인간의 탐욕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을 구상 중이다. 다양한 방식의 확장을 피하며 2023년 광대연극제에서 <고라니>라는 거리극을 했던 것처럼 2024년 이후의 [우릿]과 강연출가도 소극장에만 머물지 않을 계획이다. 극단원들이 원해 만든 <악연>이 성과를 거둔 것처럼 그들 스스로 하고파 하는 뮤지컬도 인정받는 작품이 되길 바라본다. 강연출가의 바람은 "멀리 보고 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 바람이 이루어져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우릿한' 감동을 주는 연극인이 되길 응원한다.

글_이효민



<악연-스무 번째 생일 소원>



<돈키호테: 미치거나, 즐기거나>

따스한 품성을 지닌

동시인

정재분

- 2000년 『한맥문학』 동시 등단
- 최계락문학상, 전영택문학상, 부산문학상 대상 외 다수 수상
- 동시집 『꽃잎의 생각』 외 4권
- 현) 부산문인협회 아동분과위원장, 부산여성문학인협회 문화교육원장, 금정구문화예술인협회의 회장



책과 글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수업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책을 보다가 선생님께 걸려 크게 혼날 뻔한 적 있었다. 눈을 질끈 감고 회초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학교 문예부 대표예요!”라고 말해줬다. 선생님이 문예부 대표면 알고 있는 시 한 편 읊으라고 한 마디를 툭 던졌다. 소녀는 그 당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시 하나를 훌훌 낭송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조흔」 中

화자의 비통한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시를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 자씩 읊었다. 교실에 울려 퍼지는 낭랑한 소리는 선생님과 반 학생들을 모두 감탄하게 했다. 선생님이 “문예부가 맞긴 맞네!” 회초리를 거두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는 괜한 뿌듯함을 느꼈다. 학창 시절의 번쩍이는 모래알 같은 기억은 차곡차곡 쌓여 모래성이 되어 글을 사랑하는 소녀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시인으로 치환한다.

정재분 시인이 글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던 중, 고등학교 때 적십자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면서 보육원으로 봉사활동 가는 기회들이 생겼다. 보육원의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 아이들의 형제, 자매가 되고 싶었다. 의지할 수 있

는 단단한 중심축이 되고 싶었다. 그 소박한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져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을 선택하게 됐다. 그의 삶에 있어 아이들은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아이들을 돌보고 관찰하고 자세를 낮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건 그에게는 익숙한 일과였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육성시키는 일을 이어오다 금정구 산성마을에 일터를 잡게 되었다. 산골짜기 마을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스쳐 지나가는 들꽃의 이름을 하나 하나 기억하고 바람과 친구가 되어 즐겁게 뛰어노는, 자연을 닮은 아이들의 심성을 들여다보며 20년간 잊고 있던 글쓰기에 대한 갈망이 부풀어 올랐다. 아이들을 위한 시를 쓰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처음 동시를 만나던 날, 야생화를 좋아하시던 선생님께서 선물로 제비콩을 주셨다. 제비콩을 흙에 심으며 자신이 걷는 문학의 길이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꽃이 필 때까지 정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중학교 때부터 간직해 온 문학에 대한 열망이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큰 돌만 있다고/예쁜 돌담이 되겠니//
그렇다고/작은 돌만 있다고/튼튼한 돌담이 되겠니//
큰 돌 작은 돌/손을 잡아 쉬여야/바람도 들어오지 못하지//
어쩌다 담쟁이덩굴이/안아주면 좋고/거기다 나팔꽃도 한 송이 피어 있으면/더 좋겠지//
혼자서/혼자서는 안 돼/함께/함께라야/힘이 되는 거지//

- '돌담'

그의 시는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한다.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리는 길에서 마주한 돌담에서 시상을 떠올렸다. 옹기종기 쌓여있는 돌담의 모습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단상 같기도 하다. 함께라야 힘이 되는 돌담처럼 우리도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시인의 시를 읽으면 아이의 마음이 투명하게 그려지며 정화되는 기분을 느낀다.

「돌담」은 동요의 가사가 되어 아이들의 목소리로도 담겼다. 평소에 존경하고 가까이하는 선용 선생님의 흔적을 따라 시의 언어에서 동요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종종 한다. 맑고 꾀꼬리 같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시인의 언어를 듣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띠어진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을 만나며 기쁨을 길어 올렸던 40여 년간 세월,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가 계속해서 동심을 기웃거리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시대의 어른들에게 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고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연결되어 있다.

정시인은 동심으로 바라본 아이들의 세상은 언제나 햇살 같이 빛나고 아름다웠으므로 이 따스함을 함께 나누고 메시지가 분명한 좋은 글을 앞으로 계속 쓰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의 손을 맞잡았을 때, 그가 품은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그의 시를 읽었을 때 느꼈던 온도와 비슷했다.

글 이지윤



결핍으로부터
시작하는
글쓰기의 역사

극작가
김문홍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장,
부산극작가협회 회장 역임
- 『안개주의보』 등 창작희곡집(6권),
연극평론집(4권) 등 50여 권
- 부산연극제 희곡상 5회 수상,
전국연극제 희곡상 수상
- 부산시문화상, 부산예술대상,
이주홍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등 수상
- 최우석 원장의 후원으로
김문홍 희곡상 제정(2014년부터 시상)

뿌리가 흔들린 유년의 시간

선생은 1945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동천리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음력 2월생이니 그 시간은 긴 겨울 끝, 봄의 훈풍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음력 2월이라 여전히 춥지만, 그래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선생은 첫째로 태어났다. 귀한 장남이었다. 허나 어떤 복잡한 사정으로 부모님은 선생을 큰집에 맡겨두고 고향을 떠나 부산 등 대저에서 떠도는 바람에 선생의 유년에는 부모가 부재했다.

부모의 결핍을 큰집 식구들이 채웠다. 선생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 누이와 형들에 싸여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바다를 낀 완도의 넉넉한 자연은 선생을 유순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부모가 사라진 자리, 대가족과 자연은 선생의 울타리였다. 특히 젖을 빨던 백모의 가슴과 열살 나이 차이가 나는 누이의 등은 부러울 게 없는 그대로 완벽하고 안전한 세계.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느 날 낯선 여인이 선생을 데리러 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놀랍게도 여인은 선생의 어머니였다. 8살이 된 아들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선생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낯선 공간, 부산으로 오게 된다. 선생이 처음 발을 디뎠을 당시 부산은 전후의 공간. 모든 곳이 황폐하고 낯선 곳이었지만, 가장 낯선 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였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부산이라는 낯선 공간과 엄마라는 더 낯선 존재. 그것이 8살 소년에게 놓인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열과 혼돈의 세계였다. 어머니로 알고 젖을 빨던 백모 그리고 어머니였지만 낯선 친모, 그 간극은 어린 소년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거리였다.

부모 곁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사업으로 바람처럼 사셨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장사 일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주변은 늘 적막했다. 외로웠다. 부모님 곁이라고는 하지만 선생은 완도가 그리워 향수병에 걸릴 정도였다. 부산에서 6학년을 다니던 때, 불현듯 집을 뛰쳐나와 완도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그리고도 먼 길을 걸어서 도착한 큰집

의 앞마당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기도 했다. 그런 동생을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사촌 형과 형의 손에 이끌려 다시 부산으로 오는 선생의 유년을 상상하면, 참 마음이 먹먹해진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아버지 사업이 기울 대로 기울어서 다시 완도 큰집에 맡겨진다. 그리고 일 년 지나 다시 부산행. 완도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완도로, 다시 부산으로 거듭하는 공간이동과 큰집과 부모 사이를 오가면서 흔들린 뿌리가 선생에게 놓인 삶의 조건이었다. 허나 그럴수록 고향의 자연과 큰집에서 경험한 공동체는 영원한 현재의 기억으로 깊이 남게 된다. 훗날 큰어머니의 죽음과 사촌누이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은 죽음이 주는 슬픔은 물론 자신이 굳건하게 뿌리를 뺄 수 있었던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비통함이었을 것이다. 마치 유년을 가꾸어 준 사랑으로서의 원체함이 증발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오는 두려움과 혼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야기의 세계에 빠진 청소년 시절

부산에 처음 와서 수정동과 부전동에서 살았다. 부모님의 부재도 힘들었지만 잦은 이사로 주위에 정을 붙일 수가 없었다. 수성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쉽게 뿌리내리지 못한 생활을 이어갔다. 수업 중에도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 정도로 적응하기 힘들었다. 엄청난 방향의 시간이었다.

이 점에서 영도라는 공간은 선생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중학생이 되면서 영도로 이사를 하는데, 지금 한진중공업 자리인 대한조선공사에서 살다가 봉래동 산복도로 단칸방에서 보금자리를 튼다.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 그리고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 발령을 받을 때까지 무려 12년을 살았던 공간이 영도이니, 영도는 선생에게 정체성을 만들어 준 공간이다. 이때부터 선생의 방향도 진정되는 듯했다. 완도를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는 일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결핍은 선생을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게 했다. 그것은 바로 라디오드라마와 영화의 세계였다. 특히 영화는 선생에게 어머니로부터 채울 수 없는 애정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검은 화면에 펼쳐지는 신세계는 잠시 현실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선생을 미지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특히 선생이 중학생이었던 1961년도는 대한민국 영화의 르네상스기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제작비 규모가 늘어나고 영화 관객이 폭증한 시기였다. <성춘향> <마부> <현해탄은 알고 있다> 등 여러 작품이 개봉되었고 TV가 보급되기 전 최고의 볼거리는 단연 영화였다.

선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니, 누구보다도 이야기의 세계에 탐닉했다. 지금 부산일보 자리에 있던 동아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선생은 학교보다 극장을 순례하는 일로 하루를 채웠다. 초량 수정극장, 서면 북성극장을 바람처럼 쏘다녔다. 하루 종일 극장에서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곤 했다. 선생에게 극장은 학교였고 마음의 정부였다.

1963 부산고등학교 입학에 실패하고 영도 집과 가까운 해동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선생은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시를 쓴다. 감정의 직접적 토로라는 점에서 선생에게 시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것이다.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완도라는 자연이 주는 청신함이 그를 문학의 품으로 끌고 갔는지도 모른다. 생활에서는 수줍고 내성적이었지만 시 쓰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학원』은 1952년에 창간해서 1969년까지 발행한 중고등학생 대상 교양 잡지이다. 특히 학원에서 주관, 시상한 '학원문학상'은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수상자는 문학을 하는 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선생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만 '학원문학상'을 받게 된다. 시를 쓰던 선생은 이 상을 받으면서 스스로 산

문에 재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남이 만드는 이야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영화와 다른 글쓰기의 행위가 주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선생은 바람처럼 정처 없는 마음을 글의 세계에서 붙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감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소통의 무대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

1972년 대학을 입학했을 때 선생은 또래보다 7년 늦은 나이였다.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두 번의 재수강,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와 제대 후 재수 등으로 늦어진 것이다. 늦은 나이였지만 대학에서는 활동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중에서도 연극을 만난 것은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운명이었다.

삶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하다. 대학 시절 만난 이충섭 교수(1934-2022)는 국어교육과 교수이자 극예술연구회 지도교수였는데, 선생에게 연극의 세계를 알도록 했다. 바로 한새벌 극단과의 인연이었다. 한새벌 극단은 이충섭 교수와 교대극예술연구회 출신 교사들이 만든 극단으로 전국 최초 교사극단이다. 선생은 졸업 전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극단에서 연극활동을 했다. 나이가 이미 졸업한 이들과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되었으리라.

1976년은 선생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해이다. 교사로서 첫 발령을 받았고 보길도 출신 아내와 결혼을 한 해이다. 또한 『한국문학』에 소설 <갯바람, 쓰러지다>로 소설가로 등단하더니, 그해 동화, 동시 작가로 한꺼번에 등단하게 된다. 그때 받은 상금은 몇 년 뒤 신혼살림을 위한 집을 구매하는 종갓돈이 된다. 소년 시절부터 뿌리 뽑힌 채 방황하던 그에게 글이 '집'이 되는 순간이었다. 문단에 '뒀'을 내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1980년 선생은 <수직환상>이란 작품으로 극작가로 등단한다. 이로써 소설, 동화, 동시에 이어 희곡 작가로서 글쓰기

가 시작된다. <수직환상>은 이수평이란 주인공이 수직적 상상력과 제도에 순치되는 글쓰기를 강요받는 작품이다. 또한 1980년대 엄혹한 정치적 상황과 억압적인 분위기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희곡이다. 이후 펼쳐질 김문홍의 저항적 글쓰기의 시초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후 선생은 희곡집 6권을 출판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극작가가 된다. 공연된 희곡은 33편에 이른다.

선생은 여러 자리에서 희곡 쓰기의 매력을 '현장감'이라고 말할 바 있다. 희곡 쓰기는 작가가 쓰는 희곡의 공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희곡은 소통적 글쓰기이다. 작가에서 연출가로, 배우로, 그리고 관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호소통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희곡적 글쓰기는 무엇보다 어렵고 또한 매력적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내는 집단적 예술인 연극의 뜨거운 소통은 선생이 유년시절부터 품은 외로움을 상쇄하려는 무의식적인 이끌림일 수도 있으리라.

죽음을 연습하는 삶

연극 <예술가의 자서전>(2017)에서 선생이 직접 배우로 등장하는데, 이때 선생은 자신의 독특한 버릇을 말한 바 있다. 지하철을 내려 계단을 오를 때 층계 수를 헤아려 현재의 나이에다 그 숫자를 합해, 합한 그 숫자가 선생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나이를 추정하는 버릇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죽었으면 하는 나이가 더 늘어날 것이니 이는 당연히 현실성이 없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에 기대어 자기 수명을 예측해 보는 이 버릇을 두고 인간이 그만큼 유약한 존재라고만 말할 수 없다. 그 속에는 삶 속에서 죽음을 예비하는 자세 혹은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삶이 끝나는 순간 죽음이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죽음을 예비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마치 그것은 갠지스강의 상징적 풍경을 연상케 한다. 산자의 생활과 죽

은 자의 초월이 동시에 하나의 강으로 흐르는 갠지스강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일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 아닐까.

요즘 선생은 좋아하는 명언을 입버릇처럼 외운다고 한다.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작별을 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남겨진 시간을 뜻밖의 선물로 생각하고 살라”라는 구절이다.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귀하게 받고 하루의 시간으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예비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여든을 맞은 선생은 평생 썼던 문학 장르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 2022년 여섯 번째 희곡집 『섬섬옥수』를 내고 고별 콘서트를 열었고, 올해 역시 여섯 번째 소설집으로 『눈보라 치는 밤, 집을 떠나다』라는 중단편집을 내고 고별 콘서트를 열 계획에 있다. 그동안 나온 책을 장르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소설과 희곡, 동화, 창작 활동의 연보도 정리하고 있다. 이젠 일종의 자기최면으로 하나씩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일종의 죽음 예행연습.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가는 삶의 뒀안길에서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은 더 또렷해져서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노인의 삶에 켜켜이 쌓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마치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는 말이다. 특히 그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 보내고 나이를 먹은 이가 아니라면 더 그러하다. 선생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문학과 연극 이야기는 물론이고 비평, 연구, 교육, 연극 기록 등등 그 지평이 넓고 무궁무진하여 도서관 하나를 탐색하는 듯하다. 그 점에서 김문홍은 부산 문학과 연극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글·사진_김영희 경성대 미래인재교양학부, 연극평론가

이 기 대 동백

배 기 환

레안선 금을 리뭉고
 갯물에 뜨거인 몸뚱 식히련
 두기녀의 뒤얼까
 알골의 햇날과 일몰의 노을은
 번갈아 마니며 장재산 바위 틈에
 살아내고 있는 그 곰방이라든
 사랑의 과배할 것저림
 생곳이 웃으며 일공을 북히든

작가노트 | 부산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입에 문 갈매기 한 마리 장자산을 빙빙 돈다.

글_배기환 부산문인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

RE: VIEW

- 무용** 춤에 대한 새로운 기회 모색
하야로비무용단 <객-인간은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왔을 뿐> _ 함수경
- 문학** 관조적 삶, 가을의 길 위에 서다
제만자 시조집 『아직 곁에 두고 있어』 _ 정희경
- 미술** 새로운 분류학-키치(Kitsch)와 조합의 질서
이창진 '통계학적 미술사' _ 김영준
- 연극** 울음의 연극에서 물음의 연극으로
연극 <아빠> _ 김남석
- 영화** 마음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
영화 <절해고도> _ 김민우

춤에 대한 새로운 기회 모색

하야로비무용단 〈객 - 인간은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왔을 뿐〉

글_함수경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하야로비무용단의 '객-인간은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왔을 뿐'(이하 〈객〉) 공연이 2023년 12월 8일 오후 7시 30분에 있었다. [하야로비무용단]은 부산 최초의 대학 동문 무용단으로 동인 춤단체의 시작과 그 전성기를 누렸지만 학령인구 감소, 폐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전반의 현상을 가장 오래 겪은 단체가 되었다. 35년이 넘는 시간 무용단이 무엇을 쌓고 품고 있는지 그 존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질문과 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긴 시간 공백기를 거쳐 무용단에 다시 돌아온 정기정 대표가 2021년부터 대표 겸 예술감독을 맡아 무용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

〈객〉은 하야로비무용단 대표인 정기정 안무로, 총괄기획 황종모, 대본 반민순, 시노그래피 백철호, 음악제작 최경철, 조명 신상현, 음향오퍼 김유하, 영상 스텝아트컴퍼니 참여로 무대에 올랐다. 무용수는 2023년 32회 부산무용제 우수상 〈민들레〉를 안무한 박소희와 '우수 남자 무용인상'을 받은 정승환 그리고 표예찬, 궁다빈, 박홍준, 정나원 단원과 함께 박은지가 객원으로 출연했다. 〈객〉의 대본은 1장부터 4장까지 '탐貪-허許-파破-중終'으로 구성되어 있고, 휴식시간 없이 70분 공연되었다. 리플릿 형태 인쇄물에 친절하게 대본은 작품 소개를 했고 무대에는 현대 공연예술의 시노그래피Scenography 전략에 맞게 대본과 종속적 관계가 아닌 등가적 관계로 긴 사각의 합판이 조명과 공간의 흐름을 바꾸며 심플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음악 역시 맡은 바 역할을 충실

하게 해내며 무대에서 다른 영역 전문가들과 서로의 영감을 주고받은 듯 춤을 위한 음악이 제작되었다. 어쩌면 친절하게 모든 것을 미리 때로는 춤과 함께 보여준 덕분에 총체적인 공연으로 펼쳐질 때 작품을 해석하려는 노력 없이 볼 수 있었다. 무용공연에 있어서 안무자는 창작에 대한 짐을 안무자 혼자 안고 가기보다 각 전문가와 협력은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하고 참여할 때 작품은 각 전문가의 낮은 작업도 수용하고 균형 잡아가며 총체적으로 나온 밀도 있는 안무를 기대한다. 이번 공연에서 각 전문가의 역량이 결합된 것 치고는 결과적으로 음악이 춤과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지지 못했고 대본에 따라 작품의 전후관계Sequence가 나열되는 과정은 동작의 주제Theme와 변형Variation에서 의도가 흐려졌고, 시노그래피에 담긴 함의된 이미지가 무용수와 함께할 때 극적 흐름은 예측범위 내에서 70분을 함께했다. 특히 춤에서 3장부터 옷을 탈의한 후 쉽 없는 움직임이며 탈진할 정도로 몰아치는 장면은 정기정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30년 전의 움직임 또는 그 시기에 사용하던 구형 공간Kinesphere¹⁾이 회상되었다.

총괄기획을 맡은 황종모는 "현대사회에서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예술의 소임 중에서 환경 문제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고, 현대인들이 인지하는 현실 문제 중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며 "예술의 시대성 측면에서도 환경이라는 명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



해 이번 작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²⁾. 기획을 통해 안무가가 자신의 세계를 관객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동기^{Motif}를 중심으로 동작의 기술이나 전개^{Development}에 따른 다양한 형태가 연결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라는 명제의 시의적절성은 관객이 그 기획을 바탕으로 한 의도된 춤에 공감하고 그 명제를 예술의 다양한 형태나 구조로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움직임만으로 공간을 압도하는 안무가’로 평가받는³⁾ 정기정이 자신의 춤으로는 이미 체득하고 있지만 타인의 몸을 빌려 무대 위에서 구조화된 작품을 안무할 때는 다른 문제가 된다. 움직임은 몸의 어휘가 풍부한 잘 훈련된 무용수조차도 안무기법에 변화를 주거나 치밀한 설계 또는 상상력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맞는 짝 끼는 옷을 입고 쉬지 않고 무대 위를 달리는 것과 같으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용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움직임을 끌어내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무용수들에게 숨어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훈련’보다는 ‘리서치 작업과정’이 요구되며 그 작업 과정은 무용수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몸과 움직임을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2018년 발표된 정기정의 <바랄꽃> 무용리뷰 공연 평에서 작품의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⁴⁾. 첫째, 소설 내용을 동어반복 하는 춤 구성은 작품을 느슨하게 만든

는 요인이 되었고 둘째,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감정을 끝까지 소진한 것은 관객이 감상으로 해결할 몫을 빼앗는 과잉 친절이거나 작품 메시지 자체의 잡음이라고 했으며 셋째, 주어진 공연시간(길이)과 춤의 특성에 맞도록 축약, 절제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안무와 연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작품 <객>에서도 반복된 아쉬움을 속제로 남겼다.

부산의 대부분 무용과가 폐과되고 젊은 창작자가 부산을 떠나거나 안무자 스타일의 훈련된 무용수 찾기가 어려운 무용 생태계에서 젊은 단원을 주축으로 공연한 하야로비무용단의 <객>은 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한다. 최초 동인 무용단으로 시작한 무용단이 38년의 긴 시간 동안 다수의 회장과 단원을 거치면서 축적된 역량을 정기정 대표가 다음 세대 창작자에게 전달하는 사명은 하야로비무용단의 앞으로 행보를 기대하게 한다.

1) 자신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팔다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공간
 2)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20510011731906> 부산일보 2023.12.5
 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600&key=20180705.22023001384>
 4) https://dancepostkorea.com/new/board/review/pfm_view.php?b_id=216 댄스포스트 코리아 타자의 삶에 공감하는 춤/ 정기정의 <바랄꽃>

관조적 삶, 가을의 길 위에 서다

제만자 시조집 『아직 곁에 두고 있어』

글_정희경 문학도시 편집장

작가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따라 화자와 사물의 거리, 혹은 작가와 사물의 거리는 정해진다. 그 거리 사이에 어떤 서사와 이미지와 감동을 담느냐는 것은 오로지 작가의 몫이다. 시조는 작가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선택하느냐에서 발화하지만 작가가 가진 감정과 사상과 느낌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것은 선택된 사물이나 대상을 어느 정도의 거리에 두고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제만자 시조시인의 여섯 번째 시조집 『아직 곁에 두고 있어』는 사물 혹은 대상을 관조적 입장에서 바라본다. 제 시조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회귀의 본능”보다 “집착에 가까운 걸음으로 녹슨 기구들의 눈빛을 들여다” 본다고 했지만 그가 그곳에 머무르며 “아직 곁에 두고 있”는 것은 회귀도 집착도 아닌 그가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단단한 길이다.

하행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다/둔탁하게 부딪는 날이 선 바퀴 소리가/사나흘 떠났던 집을 더 멀리 갔다/둔다//걸음을 재촉하는 창밖도 늦은 시월/마음에 실리는 것들 구멍이 송송한 채/먼 길에 지친 몸 끌고 흔들리며 가고 있다 - 「밤길」 전문

“집”으로 표상된, 시조시인이 가고자 하는 종착지를 향해 화자는 길 위에 있다. “밤길”이고 “먼 길”이고 “늦은 시월”이다. 외적으로는 그 길이 “둔탁하게 부딪는 날이 선 바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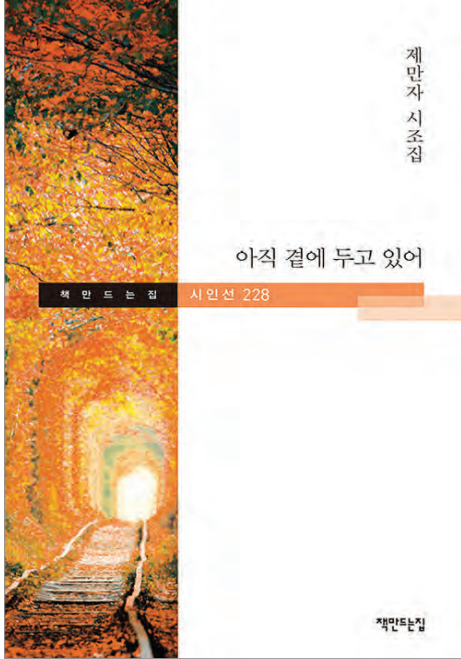
리”와 “걸음을 재촉하는 창밖”으로 인해 서두르고 급하지만 정작 화자는 급한 것이 없다. “집을 더 멀리 갔다” 두고 외부 상황에 몸을 맡기며 “흔들리며 가고 있”는 것이다.

‘관조의 사전적 의미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과 ‘참된 지혜의 힘으로 사물이나 이치를 통찰함’인데 이 「밤길」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관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태도는 「나팔꽃 집」에서도 선연히 드러난다.

부서져 가는 집에 나팔꽃만 올라가도//사방으로 흩어지는 바람 소릴 막아준다//그곳을 잃어버릴까 붙들어 지른 년출//홀로 남은 사람의 마디 굵은 노래인지//속 문드러지는 통한 우지직 들리는 집//가리면 보이는 곳이 거기 또 있었네 - 「나팔꽃 집」 전문

“부서져 가는 집”을 지키는 “나팔꽃”은 제 시조시인 자신이라 읽어도 좋겠다. “내 약한 지반 위에” 심어 “뭉개진 꿈자리 마다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나팔꽃」)이 바로 나팔꽃이다. “속 문드러지는 통한 우지직 들리는 집”을 지키고 있는 “나팔꽃”은 무심한 듯 피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바람 소릴 막아”주는 “그곳을 잃어버릴까 붙들어 지른 년출”이다.

잃어버릴까 봐 붙들고 있는 시조시인, 세월 속에 맞히는 것들의 가치를 작고 여린 대상을 통해 발견하고 견인하는 자세는 제 시조시인의 작품 전체에 흐르는 미덕이다. “세탁소 보



낸 옷에” 붙은 “꼬리표”를 통해 “연민”과 “측은지심”을 들여다보는 「색 날림」, “한데 모아둔 단추를 내다 버리”며 “낡은 시간”과 “어머니”를 떠올리는 「단추를 버리다」, “평상 위”로 지는 “그늘”을 통해 지나버린 「반생」에 경건해지는 「추분의 길이만큼」 등은 섬세한 시각과 심미적 혜안으로 대상을 따듯하게 어루만지는 수작이다.

돌아보지 않아도 보이는 길이 있어//일손 다 제쳐두고 선포 나서는 곳은//하나
 짝 열어두었던 문 나에게로 가는 길

- 「회로」 부분

누른 일 없었는데 슬그머니 문이 열린다//요양병원 뒷문 쪽 바라만 봤던 산책길//어머니 가지 못한 길 그 길 위에서 있다

- 「요양병원, 자동문 앞에서」 부분

사물이나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길에는 문이 함께한다. 그의 시조에서 문은 곧 길이다. 문이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문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문”은 열려 있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늦은 시월”쯤의 길 위에서 서 있는 그에게 희망으로 작용한다. “문”이라는 “희망”을 가진 그는 그래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찾아 나서고 더 자신의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른다. “알고 보니 길이란 다 하나로 연결되어”(「아직 곁에 두고 있어」) 있음을 직시하고 있는 그가 아닌가.

저 다리를 못 건너고 한꺼번에 가라앉았다//사투를 벌이다
 남은, 검디검은 흙의 맨살//그마저 다 타버렸으니 가을 소식이
 더 행해//넘쳐서 하나가 된 길은 서로 말을 트고//개망초 변진
 언덕 응어리마저 솟구쳐//이제야 물이 뜨겁다는 말 가슴에 와
 박한다//너털너털 덮어버린 어제 일도 사라졌다//못 지켜 내
 문 것에 맺힌 소리 들리는데//세상이 버린 잔뼈를 물빛에서 봐
 야 한다

- 「범람」 전문

시조 「범람」은 그의 관조적 삶의 태도가 절정에 이른 작품이다. ‘참된 지혜의 힘으로 사물이나 이치를 통찰함’이란 뜻의 관조의 의미가 잘 구현된 작품이다.

제 시조시인의 인생은 현재 가을쯤 와 있다. 많은 작품에서 가을을 읊고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길을 돌아보는 그의 습성이다. 물이 넘친 여름의 그 격동의 시간을 지나 시조시인은 지금 가을에 와 있다. 범람의 상처는 오히려 “넘쳐서 하나가 된 길”이 되고 더 나아가 “서로 말을” 든다. 그의 앞에 범람이라는 고난은 오히려 “물이 뜨겁다는 말 가슴에 와 박”히고 “너털너털 덮어버린 어제 일도 사라”지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세상이 버린 잔뼈를 물빛에서 봐야 한다”라고 진술한다. 그의 미세한 감각이 은유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지혜 또한 내재되어 있다. 유에서 무로, 또 무에서 희망을 보는 그의 삶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제 시조시인은 지금 가을의 길 위에서 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사물과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며 「아직 곁에 두고 있어」라고 당당히 말하는 시조시인, 그가 곁에 두고 있는 “풀리면 다시 잊고 안 풀려도 무릅써야 할” “증표”들이 길 위에서 그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단단하게 하리라 믿는다.

새로운 분류학 — 키치(Kitsch)와 조합의 질서

이창진 ‘통계학적 미술사’

글_김영준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외래교수

꿈! 우리는 오랫동안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왔다. 꿈의 기억은 생생한 것부터 왜곡된 것, 심지어 연출이 덧대어진 것 등. 꿈은 이런 유형이다. 누군가는 욕망하는 것의 기표 형태로 이미지화한 것이라 하고, 다른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지 표상이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꿈에 대한 신비감은 다양한 관념과 속속해 관여해 왔다. 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그것은 유동적이고 추상적이며 언어적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적 해설을 뒤로하고 꿈에 기대하려 한다. 그래서 꿈은 그것의 신뢰성과는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황홀한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이유도 그렇다.

영국의 머이브릿지(Eadweard Muybridge, 1830-1904)가 달리는 말을 촬영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특히 화가를 부러워하고 존경했다. 카메라의 발명은 리얼리티를 감각해 내는 인류에게 너무나 충격적 사건이었다. 낭만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낼 것이라는 의욕이 넘쳤다. 심지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시각적 가정으로 과욕까지 보여주었다. 카메라가 그린 사진은 그들의 과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판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진에 담을 수 없는 시간과 운동을 평면 이미지로 가둬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드가(Edgar De Gas, 1834-1917)의 「무희」나 「달리는 말」의 장면들은 동적인 것의 찰나를 얻기 위해 시간과 운동을 죽이고 감성에 봉사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는 이처럼 시

간과 운동을 고스란히 재현할 수 없는 매체였다. 미술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 정치와 사회체제의 변화와 거리를 둘 수 없었다. 미술은 제도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과 함께 철학하고 비평하고 고발하고 사건을 수면 위에 드러내는 일까지도 맡게 되었다. 이 시대 미술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 작가로 산다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의 그것과는 새로운 필드에서 새로운 룰을 가지는 스포츠 경기와도 같아졌다.

작가 이창진은 처음에는 물의 형태를 고착시키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 왔다. 물과 같은 무형의 (無)동성을 고착하려 했던 노력은 낭만주의 시대 작가들의 욕망에 견줄 수 있다. 찰나만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두려고 했다. 물이 담긴 물병들이 하나의 질서를 가지려는 것, 죽은 식물들이 화분과 분리되어 마치 미라처럼 고착되는 현상 등은 운동과 시간에 대한 사유를 작품에 녹이려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지로 사유하고, 철학하고 실천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에게서의 이미지는 일루저니즘(illusionism)이 아닌 인식론적 문제에 가깝다. 그의 작품은 예술적 위상학 계열에 앞서 사회적 좌표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에는 그만한 스타일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이번 개인전에서 이러저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사실 좀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동양화 작품이 콜라주(Collage)된 작업이다. 전시 타이틀이 '통계학적 미술사'(23. 11. 29. - 12. 3. 금생미술관)라는 꽤나 은유적 기표의 형태를 띤다. 폐기된 동양화

작품들, 그러니까 버려지다시피 한 장식용 산수화, 문인화 풍의 작품을 중고장터 등에서 싸게 구입해 작품의 재료로 사용했다. 화조도의 꽃과 나무와 새를 오리고, 산수의 산과 물을 오려냈다. 잉어와 호랑이도 등장한다. 오려진 각각의 이미지를 한데 모아 새로운 산수, 새로운 화조, 새로운 꽃 그림과 풍경으로 조합한다. 이렇게 거대한 산수, 아니 새로운 풍경이 탄생했다. 어쩌면 풍경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미지 조합의 플라주 그 자체다. 어쩌면 키치

Kitsch와도 같은 이미지들은 각각의 기표들이 모인

하나의 풍경 대상으로서 총량을 재는 것 같다. 이 무모할 것 같은 행위는 무엇일까? 그에게 동양화, 산수화, 문인화와 같은 분류학적 관념과 동양화 감상의 질서 따위는 의미 없다. 그는 수집된 그림들의 자료를 남기고 오려낸 여백들을 스크랩했다. 마치 미술사가들이 자료를 모으고 스크랩하듯이.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8개월 동안 부산지역에 서만 200점 가량의 액자, 병풍, 족자들을 수집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림들이 있었다. 목단, 정물, 이름 모르는 꽃 그리고 다양한 필치의 산수, 새와 호랑이, 백마리의 학도. 습기에 변색이 된 것과 곰팡이가 핀 것들. 아예 그림의 포장을 뜯지도 않은 것까지(그림은 무료 나눔이었다). 나는 이 그림들을 액자와 나무틀에서 떼어내고, 뽀뽀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삼합 한지에 배접했다. 중첩된 산과 들, 나무, 집과 배 따위를 따로 오려내고 시점과 색감, 크기, 형태에 따라 벽면에 커다란 풍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은 반복했다. 그림 수집에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당근마켓에 열대여섯의 키워드를 걸어놓고 그림이 나오면 내 동선 안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다.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림을 받아 실어 오고를 반복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이 생기면 다시 떼었다 붙였다 반복한다. 긴 호흡의 평면 작업이 익숙지 않았지만 벽면에 하나둘 붙인 그림은 어느덧 가로길이 8m를 넘어갔다. 마치 그림 자신들의 의지가



있는 양 자연스럽게 증식했다. (통계학적 풍경화)

이 인용문은 작가 노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작가의 작업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편력적 과정에서 그의 작품이 아닌 사물을 대하는 사유 방식을 읽을 수 있다. 버려지고 폐기되는 작품들, 소위 싸구려 소모적인 장식품들이 예술의 인식론적 경계에서 줄타기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시한다. 관념으로 이루어진 산수와 화조들로 조합된 이미지는 우리의 인습에 대한 굴곡을 수면 위에 올려놓았다. 어떤 작품은 값비싼 사물로, 어떤 작품은 골방 벽을 한동안 장식하다 폐기되는 제도와 문화 인습에 대한 환기로 보인다. 동양화의 유사한 소재들 이를테면 산과 물, 꽃과 곤충, 꽃과 나무, 잉어와 동물들을 오리고 분류하고 모아 놓음으로써 이미 새로운 분류학과 통계적 자료를 가질 수 있었다. 미술의 시간적 계보들이 간섭하면서 미술사라는 은유적 표상 역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계학적 미술사'는 아마도 거대한 키치 산수화를, 산수화를 닮은 거대한 장식품을, 장식품을 통한 새로운 풍경 대상을 꾸며 놓으며 낯선 이미지를 도출해 내었다.

계열들로 분류된 기표들은 통계적인 지표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의 전시적 가치와 예술적 상상력으로 돌려놓는 작가 이창진의 행위는 표상 행위에 새로운 가능성과 영감을 준다.

울음의 연극에서 물음의 연극으로

연극 〈아빠〉

글_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연극 〈아빠〉를 관람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훌쩍거리고 숨죽인 울음소리를 들곤 한다. 연극 관객으로서 이러한 체험은 나쁘지 않은 기억이다. 무언가를 함께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던 그 이야기에 격렬하게 공감한다는 증거이자 동의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빠〉의 관객은 나이 든 분들이 제법 많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웠던 이들은 객석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듯, 극 중 인물들을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러한 관객 중에는 오랜 세월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했던 아버지도 있고, 그러한 아버지를 구박하면서도 함께하는 것 이외의 다른 삶은 꿈도 꾸지 않은 아내도 있다. 물론 하는 짓마다 은근히 '입상'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워할 수 없는 막내도 있고, 나이답지 않게 지나치게 어른스러워 때로는 그것이 더 걱정되는 맏딸도 있다. 우리네 평범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빠〉에 나타난 가족들을 바라보면, 대개의 가정이 그러하듯 연극 〈아빠〉는 평범한 가정, 특별할 것 없는 우리네 이야기가 된다.

평범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 안에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있어, 이 이야기는 평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빠〉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대목은 의외로 쓰러지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고집하다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아빠의 모습은 분명 안타깝다. 그의 지난 세월이 무너지듯 아빠는 주저앉았고, 그렇게 누적되어왔을 시간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슬픔과 걱정을 차오르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문제의 시간은 그러한 아빠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다. 유창한 말을 잃고, 활발한 걸음걸이를 잃고, 명민한 기억과 판단력을 잃고도,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새벽 등산을 고집하고, 집안이 갑갑하다며 밖을 나갈 궁리에 열심이다. 자기를 아이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되찾기 위해 가족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방식일지라도 자신의 방식을 잃지 않으려 하며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 한다.

자연스럽게 극적 갈등은 주로 아빠의 이러한 행동과 고집에 맞서는 가족들의 인내와 걱정에서 비롯된다. 가족들의 시선에서 아빠의 선택은 무모하고, 아빠의 판단은 어리석다. 심지어 아빠는 그들의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원망해야 할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어느 집이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 시간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간에—눈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빠〉를 보고 많은 이들이 훌쩍거리며 울음을 눌러 참을 수 없는 이유도, 그 시간에 함께 나오는 자기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격한 동의의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동의로서 공감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아빠〉는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아빠〉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인지하면 더욱 그러하다. 〈아빠〉가 큰딸로 출연한 배우의 실제 사연이고, 극 중 장면처럼 이를 연극으로 바꾸려고 했던 연출가 본인의 체험담마저 포함되어 있

다는 사실을 접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아빠〉는 눈물과 걱정, 체험과 공감에 결합한 감정의 연극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연극을 보면, 우리가 겪은 기억을 끄집어내어 손쉽게 이 작품에 대입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연출가 허석민도 그러한 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극 중 삶의 풍경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적극적이었다. 어색한 골프 스윙이나, 배를 굶으며 등장하는 딸의 모습이나, 어느 집이나 있을 법한 그저 그런 냄비나, 맛있는 음식과 딸에 대한 편애나, 심지어는 속이 뻥히 보이는 연애 혹은 남자의 접근 역시 그러하다. 그것은 우리 삶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변한 풍경들이고, 익숙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울음은 현대의 예술 작품이 가져야 할 질문의 기능을 어느새 뺏어 버린다. 〈아빠〉는 우리의 삶을 투영한 덕분에 관객이 작품 속에 몰입하여 잠시 현실의 슬픔을 잊도록 만들어 버린 작품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적지 않은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에 초연을 관람할 때만 해도, 작품의 개성과 특징상 이 작품에 감정의 공유가 아닌 이성의 질문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다시 공연되어야 한다면, 이제 이성의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진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른 시각에서 이 작품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해 두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아빠〉는 감정의 진폭이 크고 공유 면적이 넓은 덕분에, 무대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리고 연극적 정황을 돌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질



문을 뺏어 버렸다. 우리는 자기 삶에서 이러한 슬픈 사연을 하나쯤은 알고 있기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당 사연에 동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 슬픔과 경험의 이면을 바라볼 힘을 되찾지는 못한다. 가족의 따뜻한 마음은 정겨운 풍경이지만, 그 정겨움 뒤에 분명 존재하는 가족의 본질과 충돌의 이유를 직시할 힘까지는 확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 작품을 통해 치매 노인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거나 노인 복지 혹은 시설 안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자는 말은 아니다. 현대적 삶을 살아가는 극 중 가정에서 가족이 내보이는 삶의 풍경과 사소하지만 중요한 균열은, 비단 아빠의 치매와 건강 악화로만 풀 길이 없어 보인다. 일상의 평범하지만 생생한 단면에서 풍겨 나오는 동시대의 삶이 내포한 문제의식은, 감정적으로 휘발하기에는 지나치게 매력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연극 〈아빠〉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서 내년 혹은 그 이후에도 또다시 공연되어야 한다면, 감정의 녹진한 공유도 중요하겠지만, 이 작품이 던지는 가정과 가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질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감정과 공감의 현재 연극에, 이를 되묻고 되새기는 또 한 겹의 진실을 투여해 새롭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의 울음'에 '미래의 물음'을 얹어놓을 수 있다면, 〈아빠〉가 보여 주는 삶의 균열을 보다 의미 있는 울음과 물음으로 환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

영화 <절해고도>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2023년 12월 15일 영화의전당에서 제24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이 열렸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1958년도에 생긴 지역 유일의 영화평론가협회로써, 2000년도부터는 국내에 개봉한 한국영화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직 영화평론가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을 결정해 타 시상식과는 다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수상 부문은 대상, 심사위원특별상, 신인감독상, 남자연기자상, 여자연기자상, 신인남자연기자상, 신인여자연기자상, 각본상, 기술상, 공로상 격인 이필우기념상 등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무수한 영화들 사이에서, 홀로 빛을 발하고 있는 <절해고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제목이기도 한 ‘절해고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뜻한다. 과연 그 말대로 <절해고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의 멀리 떨어진 섬처럼 존재한다. 윤철(박종환)은 세계를 위해 작품을 하지 못하는 조각가인데, 그는 주변부 인물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교류를 이어가지 못한다. 그의 딸 지나(이연)는 그림에 재능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다룰 줄 몰라 윤철을 미워하며 타인을 밀어낸다. 윤철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영지(강경원) 역시 홀연히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반복한다. 이들은 만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 인력과 척력은 찾아볼 수 없다. 카메라는 그들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관여하지 못하거나, 감정의 파고가 지나가 버린 후의 일상에 놓여있다. 그러니 <절해고도>에서는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 영화는 이미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 안에 켜켜이 쌓인 시간들, 감정의 흔적들을 그저 흐르는 대로 관찰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절해고도>는 ‘왜?’라는 물음이 삭제된다. 지나가 도맹이라는 범명으로 출가를 결심한 이유도, 윤철이 갑작스럽게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행위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 안에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분석하려는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유를 찾으려는 질문은 또한 인과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절해고도〉는 인과관계의 형성을 단호히 거부하는 영화다. 영화는 인물들의 관계를 ‘원’으로 만들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지나가 도맹으로 변화하는 장면 그 앞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윤철은 호숫가에 차를 대놓는다. 그러다 문득 시간이 흐른 듯 차에는 낙엽이 쌓여있고, 행인이 발견한 후 윤철은 차 밖으로 쓰러진다. 마치 윤철의 죽음을 예비하는 듯하지만, 다음 컷에서 지나가는 어느새 머리를 깎은 채로 도맹이 되어있으며, 윤철은 예의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더 이상 부녀 관계로 칭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윤철마저도 예의 그 긴 머리를 자른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두 인물은 이후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같은 인물로 상정하게 된다. 나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지나와 윤철이 아니라 도맹과 다른 윤철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 인물은 비슷하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심증을 뒷받침하는 요소는 하나 더 있다. 윤철의 나레이션은 선형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과거’와 ‘현재’를, ‘미래’의 시점에서 불쑥 들어온다. 그렇게 영화의 시간축은 어지러진다. 이로써 〈절해고도〉는 직선적 형태를 거부하고 원형의 세계를 구축한다. 원

형의 세계는 영화라는 매체의 본질을 건드린다. 인과 관계의 필요성이 무너진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만 하는 영화의 물성에 대해 질문하고, 카메라가 인물이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의 중계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인물의 선택을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무한히 뺏어나가 존재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해고도〉에서 중요한 건 인물들의 마음이다. 인과 관계와 시간이 삭제된 곳의 인물은 오직 그들이 지닌 마음과 스쳐 지나간 인연만 남게 된다. 그 마음은 타인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어당기지 않으려고 하는 귀중한 마음이다. 서로의 선택에 그 어떤 사족을 달지 않고 사려 깊게 지켜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닌 존재들이 〈절해고도〉에 서 있다. 저 멀리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건만, 느슨하게 이어져 있는 서로의 실의 존재와 그 실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인정하는 것. 이보다 인물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내는 시선이 있을까.

예술치료 I

단일예술치료와 통합예술치료

예술Arts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신화적 관점이든 사회학적 관점이든 미학적 관점이든!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예술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침전된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서 인간은 카타르시스(Catharsis, 심리적 정화)를 경험한다. 여기서부터 예술치료Arts Therapy가 시작된다.

예술치료는 주관성과 상징성을 표현하는 예술의 영역과 객관성과 구체성을 내포하는 치료 영역의 접점에 해당되는 Hybrid형 학문이다. 예술치료에서 치료의 의미는 의학적 처치가 아닌 정신적 치유Healing의 개념이다. 정신건강의 한 영역인 예술치료는 예술 매체를 도구로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신체와 정신,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이며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신체와 정신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뜻이다. '새롭게 설계한다'란 잘못된 선택과 습관 혹은 부정적인 외부 조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잘 살피고 들여다본 후 고통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조율하는 것이다. 이 조율의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예술 매체에 따라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연극치료Drama Therapy, 영화치료Movie Therapy, 사진치료Photo Therapy, 문학치료Literary Therapy, 무용/동작치료Dance/Movement Therapy 등의 단일예술치료와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합 적용한 통합예술치료Integrative Arts Therapy로 구분된다.

내담자의 나비손(2023)과
내담자의 보석손(2023)



국내 예술치료에 관한 연구는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창단되었고 연이어 1994년에 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1996년에 한국음악치료학회의 창단을 시작으로 예술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후로 2003년에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년에 한국연극치료협회, 2008년에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2011년에 한국사진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들 단체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하고 정기적인 학술 행사를 통하여 예술치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위의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단체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술치료는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해 왔다. 병원·시설 내 임상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치료가 행해져 그 효과를 증명해왔으며 개인에 의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97년 이후 대학에서도 음악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연극치료학과, 문학치료학과, 통합예술치료학과 등의 독립된 예술치료학과를 설립하여 전공자를 배출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예술이 갖는 치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예술의 치료적 기능 및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오늘날까지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객관성, 한국형 척도 개발의 필요성, 연구의 제한점 등의 한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매체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는 예술치료의 공통점은 내담자가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소되지 않은 무의식을 자연스럽게 표출시킨다는 것이지만 분명, 매체별로 그 고유의 치유성이 존재한다. 각각의 예술 매체가 지니는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악 매체는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수용되고 이것은 대뇌로 이어져 지각과 인지의 과정을 통해 정서적 반응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인간의 정서 반응은 곧 생리 작용과 연결되며 이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악기연주(Playing instruments)는 내담자의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주위 상황들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음악감상(Listening)은 기억력과 회상을 유도하며 창작(Composing)의 과정은 전체에 대한 통합력을 키운다(Bruscia 1998: 116-125). 그리고 긍정적 어휘 선택을 통한 노래 부르기(Singing)와 노래 만들기(Song writing)는 내담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기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미술치료에서 미술이란 내담자가 표현하는 회화, 조각 등의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경험하는 모든 미적 표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의 범위는 시각적 이미지, 상

| 기획연재

징, 은유 모두를 포함한다(Brooke 2006: 3). 미술치료 장점은 결과물 보존이 가능하므로 추후에 거러두기를 통한 내담자의 감정을 재경험할 수 있다. Riedel(2002)은 그림을 그리는 전후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상상과 상징, 대화와 해석 등에서 자아발견, 자기에, 자기실현 등의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기(Painting)와 난화(Scribbling) 작업은 활동 후 많은 이야기 소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 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공유가 가능하다.

연극의 치료적 기능 중 하나는 내담자가 '무대'라는 안전한 공간을 통하여 자신을 재현하는 제3자를 바라봄으로써 내담자 스스로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 또한, 무대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는 내담자의 내·외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적체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Landy 1994: 180-195)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Jones 1996: 192-193). 그리고 연극의 오락적이며 놀이적인 속성은 내담자의 창조성을 자극하며 자발적인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rooke 2006: 314-315).

시각, 청각, 언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영화는 내담자의 인지, 정서, 행동을 의식으로 빠르게 연결시킨다(Dermer-Hutching 2000: 163-180, Sharp-Smith-Cole 2002: 269-276). 영화는 디렉터의 의도가 지시적이고 연상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므로(Wolz 2004: 165-176) 내담자는 이러한 의도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대리 경험함으로써 적체된 부정적 감정을 배출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속 내용을 토론하고 이를 재현함으로써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습득하고 자기 이해를 돕는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며 대리 학습과 관찰 학습의 도구로 사용되어 긍정적 특성 강화에 도움을 준다(심영섭 2011: 109-132).

사실, 전달, 기록의 특징을 지닌 사진(김은하 외 2021: 38-42)의 치료적 속성은 시각을 통한 무의식의 집중이며 이러한 무의식과 마주하는 시간은 내담자 스스로가 본인의 문제와도 직면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내담자는 스스로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에(문미나 2019: 16-19) 내담자가 창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초기 치료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조진호 2011: 113).

12시간 동안의 감정 변화를
이미지로 표현한 통합예술치료(2022)



문학치료에서의 문학이란 독서, 이야기, 노랫말, 신문 기사, 시, 일기 등을 의미한다. 글쓰기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안전하게 외현화시키는 작업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가 다른 관점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치료적 기능이 있다(이봉희 2008: 111). 독서를 통하여 내담자는 책 속의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시간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의 과정을 가진다(Pardeck-Pardeck 1993: 103). 또한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은 내

담자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통 방법을 제시한다(박종수 2005: 76-77). 21세기는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의 시대라 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존재함을 느낀다. 스토리텔링은 화자와 청자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으로써 서로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공동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몸동작은 원시시대부터 주로 집단적 공유를 통해 예술의 목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두렵고 억압된 감정의 발산을 몸으로 행함으로써 황홀경 Ecstasy에 빠지는 경험을 갖게 한다(류분순 2008: 348-349). 무용/동작치료에서 신체 움직임은 곧 내담자가 경험한 삶의 기억이며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Shawn 1974: 47-51). 언어적 접근에 방어적인 내담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며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무의식이 상징화된다(Davis 1974: 18-22).



내담자들이 제작한 탄생 설화책(2023)

통합예술치료는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개발된 학문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융합 Fusion’, ‘통합 Integrative’,

‘통섭 Consilience’의 흐름과 함께한다. 인간의 인식기관은 각기 다르게 반응함과 동시에 여러 기관이 함께 작동한다. 즉, 인간의 정신세계는 지극히 다원적이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 각자 여러 예술 매체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존재한다(Malchiodi 1999: 86-88). 그러므로 내담자에게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합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1974년 미국 Lesley University에 통합예술치료 대학원을 최초로 설립한 McNiff는 2009년 그의 저서 『Integrating the Arts in Therapy: History, Theory, and Practice』에서 각각의 예술 매체는 고유의 치유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면 단일예술매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각각의 예술치료는 매체별로 고유의 특수성과 기법을 가지고 있으나 ‘예술 활동을 통하여 내담자의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공통점을 품고 있다. 예술의 강력한 치유력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여 내담자의 정신적 안정과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이다. 40여 년 동안 음악만 바라보고 살아온 필자가 예술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가 경험한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 어두운 우리 사회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였음)

글_김소형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예술치료학과 교수

최장락 후보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이사장 당선



지난 12월 16일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이사장단 및 감사와 각 분과 회장, 각 분과 이사 선출 선거가 치러졌다. 협회 유권자 1,768명 중 1,245명이 투표에 참여해 70.4%의 투표율을 보인 이날, 최장락 이사장 후보는 744표를 얻어 제32대 이사장으로 당선됐고 부이사장단 최상철(내무) 곽순곤(외무) 박선민(회원) 박무숙(사업) 김미숙(국제)과 함께 부산미술협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감사에는 박옥남 박인관 후보가 각각 510표와 377표를 득표해 당선됐고, 각 분과회장에는 ▷한국화 김현철 ▷서양화 유

선경 ▷조각 박은생 ▷판화 곽태임 ▷디자인 박규태 ▷공예 정경이 ▷학술평론 김성현 ▷서예 정인동 ▷문인화 박원옥 ▷수채화 이순이 ▷민화 불화 이영실 후보가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지지해 주신 많은 회원 여러분과 개혁의 의지를 심어주신 한분 한분에게 이사장 당선 영광을 돌린다. 제31대 박태원 이사장 및 임원 여러분의 노고로 발전을 이룬 모든 사업과 책무를 정중히 물려받고, 제가 공약해 드린 개혁과 발전을 더하여 부산미술협회의 새로운 장을 이루어 갈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부산미술의 시대적 혁신 방안 정립을 위한 플랫폼 구축(100년 부산미술 및 80년 부산미협 백서 편찬 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미협 사업 추진(부산미협 전용 대형 전시공간 확보 추진 외) ▷부산미술협회 회원 위상강화 지원사업(청년작가 부산미협 입회비 무료 연령 45세로 상향 외) ▷부산시 구·군, 산업계와 연계된 실리적 사업에 미협회원 참여와 복지 기획(부산미술은행을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해 작품 판매 및 대여사업 시스템 구축 실현 외) ▷예산 확보를 통한 회원 지원 및 복지 강화(국비, 시비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 작성 상담 및 지원 외) 등이다. 제32대 이사장 임기는 2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서지영무용단, 후쿠오카문화연맹 - 예술무대2023에서 공연



[서지영무용단]이 후쿠오카문화연맹과 서일본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후쿠오카문화연맹축제-예술무대2023에 초청받아 공연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와 후쿠오카문화연맹은 2009년 예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한 후 교류협약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예총은 지난해 개최한 제61회 부산예술제에 후쿠오카 예술가들을 초청해 코로나 때 멈췄던 교류를 재개했고, 이번에는 부산의 예술가들이 후쿠오카문화연맹의 초청을 받아 공연하고 돌아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후쿠오카시립미나미시민센터 문화홀 등에서 열렸다. [서지영무용단](서지영,

남선주, 윤정미, 허경미, 조현영)은 16일, 후쿠오카 시민들의 열띤 환호 속에 <아리랑춤>을 선보였고 공연 외에 광명선사 후지마루, 유메타운 등을 관광하고 돌아왔다.

이정남 부산연극협회 회장·김인숙 부산국악협회 회장 '제36회 대한민국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김인숙 부산국악협회 회장

◀ (왼쪽부터)
안규성 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
이정남 부산연극협회 회장,
이범현 한국예총 회장,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이정남 부산연극협회 회장과 김인숙 부산국악협회 회장이 '대한민국 예술문화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예술문화공로상은 민간예술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헌신한 예술인들의 공익적 활동과 업적을 평가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한국예총이 1987년 제정한 상이다. 본 시상식은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일정 중인 10월 26일 전라남도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전국 대표자 워크숍과 함께 열렸다. 이날 한국예총은 한국예총 4대 혁신프로그램으로 한국예총 자립기반 구축, 예술인 권익보호 및 지원확대,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 및 문화향유권 확대, K-Culture 세계화 선도 등에 관한 논의도 나눴다.

이정남 회장은 11월 29일 한국예총 임시총회에 참석해 상장 및 상패를 직접 전달받았고 김인숙 회장은 개별적으로 상장 및 상패를 전달받았다.

오충근 BSO 예술감독 '올해의 공연예술가상' 수상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예술감독이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회장 이창주)의 제14회 공연예술경영상에서 '올해의 공연예술가상'을 수상했다. 공연예술경영상은 국내 공연예술 발전에 공헌한 예술가와 공연 예술인 등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시상 부문은 ▷공연예술경영대상(김용현상) ▷올해의 공연예술가상 ▷공연기획자상 ▷공연예술공로상 4개다.

올해의 공연예술가상은 1년간 뛰어난 활약을 보인 공연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전 수상자는 손열음(피아니스트) 백건우(피아니스트) 성시윤(지휘자) 안은미(무용가) 문훈숙(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등이다. 오 예술감독은 오랜 시간 민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음악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지역 예술가로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 예술감독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부산의 영광이다. 클래식 음악계는 수도권 중심이

었다. 부산 음악계를 주목하는 움직임이 높아진다는 뜻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공연예술경영대상은 대구문화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가, 공연기획자상은 윤동진 (주)더브릿지컴퍼니 대표가, 공연예술공로상은 고 김남윤 바이올리니스트가 받았다.



자연과 환경전

~ 1. 12.(금)
홍티예술촌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명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에서 제16회 을숙도 사생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자연과 환경전을 연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단체의 활동 정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미 굳어진 기성세대의 의식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꿈나무 어린 이들에게 환경에 관한 교육과 미술과 곁들여서 했으면 한다. 그런 목적으로 개최된 을숙도 사생대회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대회를 격려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번 전시는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성 작가들의 다양한 화풍이 담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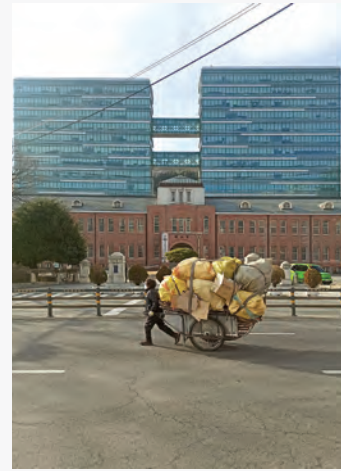
문의 051)262-6562



Into the wild

~ 1. 13.(토)
갤러리플레이리스트

일상 속에서 관찰되고 작가의 내면에 의해 발견된 원시적이며, 본능적인 자연의 심상 풍경을 선사하는 전시가 있다. 갤러리플레이리스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환경, 다른 호흡과 시간을 담은 네 작가의 일상적이고 주관적인 시선을 볼 수 있다. 일상의 반복에서 비일상적 순간을 발견하여 그림이라는 물질로 변화시키는 박정원, 우연히 마주친, 혹은 무의식적으로 목격한 자연의 모습을 기억을 새롭게 채우듯 식물과 꽃과 자연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유수지, 현실의 불안에 대항하는 내면의 풍경을 그려내는 최나무, 소소하게 세상에 떠도는 여러 장면에서 작가 생각이 닿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려내는 해오의 작품을 통해 각자가 펼쳐내는 자연 속 이야기들은 섬세하고, 날카롭게 우리 모두의 모습과 풍경을 대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문의 070-8287-2259



박현우, 서른개 도시일상전

1. 27.(토) ~ 2. 4.(일)
BNK부산은행 갤러리

특별한 상황이 아닌 평범한 도시의 일상을 쓰고 찍고 기록하는 작가의 여덟 번째 작품전이다. 이번에는 가오송을 비롯해 교토, 다낭, 대전, 베이징, 부산, 양곤,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서른개 도시를 카메라와 함께했다. 프레임 안에 담긴 도시들은 낯선 듯 익숙하다. 그 낯선 풍경들이 말을 걸어온다. 매일 보던 해와 달도 여행지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듯이. 때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스스로가 낯설게 생각되기도 한다. 여행에서 우리는 한결 가벼워진다. 작가는 “도시를 매일 흘러간다. 당신이 존재했던 날에도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가는 방랑자처럼” 여행하듯 가벼운 발걸음을 권한다. 작품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낯선 그곳의 풍경들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문의 051)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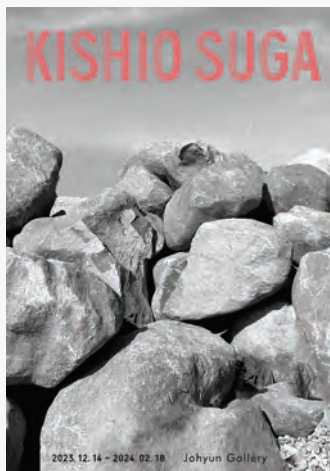


김대연 초대개인전
活語會

1. 13.(토) ~ 2. 12.(월)
갤러리한스

갤러리한스가 새해를 경쾌하고 재기발랄하게 시작해보고자 글그림에 타고난 감각을 발휘하는 '멋글씨작가' 김대연 작가를 초대했다. 붓질의 휘갈김과 먹의 묵직함을 즐기며 화이트 있는 글과 글인듯 그림인듯 감각 넘치는 글그림들을 소개한다. 서예를 전공한 작가는 2019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전국무용제 캘리그래피 디자인, 포천막걸리체 개발에 참여한 실력파로, 대구특산품이라고 지칭될 만큼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이지랄달력'을 제작했다. '살아있는 말 모임' 活語會라 명명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글자를 쓰는 일은, 글씨를 표현하는 일은, 하지 못해 사라졌던 말과, 했다가 사라졌던 말, 하고 나서 사라질 말들을 오래 보고 소중히 기억하기 위해 종이 위에 되살려 두는 작업'들을 소개한다.

문의 010-4574-0660



키시오 스가

~ 2. 18.(일)
조현화랑

물체 본연의 탐구에 집중하는 모노하 운동을 이끈 일본 화가 키시오 스가가 조현화랑에서 개인전을 연다. 그의 작업 방식은 나무, 금속, 돌, 종이, 로프, 콘크리트, 왁스, 비닐 등의 물체를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간 안에 배치하여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1975년부터 2023년까지 제작된 작품을 전시한다. 특유의 평면 오브제 작업과 더불어 전시장을 재해석한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물체와 공간, 공간과 사람 사이에 본질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방목되는 것,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작가가 만들어내는 작품세계다.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나 조각이라는 기존의 예술 장르를 넘어 일종의 풍경을 통한 유동적 관계를 경험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51)747-8853



박종규 개인전

1. 25.(목) ~ 2. 29.(목)
데이트갤러리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한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컴퓨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밀착되어 있다. 동시대 미술사조에 대해 늘 고민하는 박종규 작가는 선택되고 남은 배제된 것 안에서 미술적 가치를 사고한다. 특히 컴퓨터의 잘못된 연산 처리로 인해 나온 '노이즈Noise'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는 제거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노이즈를 휴머니즘의 잔존을 뜻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시각적으로 부각해 그의 작품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위의 노이즈 개념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박종규 작가의 작업은 무차별을 지향한다. 작가가 물감을 바르고 떼어 내는 과정 속에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전복되고 작품 안에서는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싫은 것의 본원이 같아지는 경험을 관람객들은 겪게 된다.

문의 051)758-9845



나를 검색한다 박혜숙 / 책펴냄열린시

가스통 바솔라르는 '정신적 삶은 커지려고 하고 위로 오르고 싶어한다'면서 '시적 이미지들 이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들어올리고 우리를 상승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 정신의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삶이 버거운 사람들은 안다. 몸과 마음이 무거우면 단 한 발자국 떼는 것도 고통인 것을.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는 일이 그나마 수월함. 네 번째 시집을 출간한 박혜숙 시인은 일상의 풍경들을 시로 엮는다. 쉽게 읽혀진다고 해서 결코 시들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강영환 시인은 '만나는 대상이나 사연들에서 순간 포착으로 시적 영감을 얻고 시를 구축해 나간다. 일상에서 쉽게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박혜숙 시인의 대상도 일견 치열한 내부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 설명한다. "창고 구석에 매달려 있는 곡자, 결혼하고 몇 번 손길에 지났건만 삼십여 년 지키고 있는 자리에 변색도 기울어 줄 칸이 무너진 알몸을 건너고 있다"(「곡자」 중)처럼.



내 안에 공룡이 산다 이미성 / 육일문화사

길이가 짧아 읽기 편하고 남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작가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때로 따끔한 비판은 통쾌함을 주기도 하고, 격조 높은 유머와 유티, 재치까지 담겨 책장을 넘기는 틈틈이 환한 웃음을 선물받기도 한다. 2015년 월간 『문학도시』로 등단 후 펴낸 이미성의 첫 작품집이지만 수필의 문학적 묘미를 한껏 체험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내렸는지 사람 3과 사람 4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내 할머니도, 아버지도 기약도 없이 가셨지요. 누군가의 시선에서 나도 그렇게 사라지겠지요. 지금도 시선 밖으로 걸어가는 중인걸요.' 하단에서 장전으로 가는 여정에 지하철 한 칸을 배경으로 쓴 「도시철도 1호선」은 "철학과 구성의 미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가을에서 겨울까지」 「편지」 「그의 까마귀가 되고싶다」 등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다.



물비늘 풍경 노옥분 / 도서출판 이바구

2009년 첫 시집 『네가 없는 날이면 너를 만난다』 이후 펴낸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별의 노래 들으며 허공에 쏘아 올리던 시, 밤새 뒤척이다 북북 찢어 구겨 버린 시편들' 그리고 영혼의 조각 같은 70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땡땡 아래서 독감에 걸렸다/떨떨 콧잔등이 꿇고/속절없이 입술이 열리고/기침은 벌써 성문(聲門)에 감'히고 '땀구멍마다 열꽃이 돋아도 처방전 없이 폭염 아래 웃으며 견뎌내는 모습에선 삶에 대한 강인한 모습도 보이고, '나무는 이름 없이 생을 누리는 무명초와 같이, 누가 부르지 않으면 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드러내지 않고 제 길' 걸으며 '저가 사는 대로 살아갈 뿐'(「이름 없는」 중)이라는 표현에선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택한 길을 묵묵히 걷는 신념도 읽힌다. 순례자의 길을 걷듯 삶의 일상과 여정에서 신앙심을 돈독하게 표현하면서도 '개성적으로 다양한 시 창작 기법을 수용하여 탁월한 역량을 보여'(신기용 문학평론가)준다.



이중의 층위 변용의 시학 권대근 / DK출판사

수필에 죽고, 수필에 살던 작가는 언제부터가 시와 외도를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시가 정서를 낫설게 만든다면, 철학은 사유를 낫설게 만든다. 새로운 실천,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사유 그리고 정서와 맞부딪쳐야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시詩의 힘이다. 시는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행동으로 밀고 나갈 정서의 힘을 내재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태곳적부터 오늘날까지 세상과 삶을 노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을 돌아보고 세상을 비판하는 역할에 있어서 시는 언제나 선두에 있었다'면서 이 책은 시인들이 전하는 인간의 삶을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펴냈다고 한다. '심장에 사는 말, 생수에 타는 밤 _한분옥론' '형상미학과 미적 진보의 콜라보 _최재선론' '언어적 감수성, 언어미학적 조형미 _문정희론' 등 '독자에게 시와 시인의 삶을 큰 호흡으로 횡단하며 시인과 평론가의 고뇌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달빛에 가다 주희령 / 책떠냄열린시

문학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이다. 자신만의 체험들이 독창적인 미적 가치 판단을 거쳐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작가만의 언어로 엮어놓은 것이 문학이다. 주희령 시인은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온 응어리들을 풀어내고 멎든 가슴을 치유하고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의 노정'을(강영환) 시로 쓰고 시집으로 엮었다. '그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너/모든 걸 비웠기 때문이지/나, 이렇게 가라앉는 건/그대를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이야...잠들기 전 가만히 불러보는 당신/너를 꼭 껴안으면 눈물방울도 굳어져'(『섬, 중』) '숙성되지 못한 생각들, 표정 언저리 못한 말들이 가느다란 숨을 쉬고, 집을 찾지 못한 감정들이 어물려 나도 모르는 티끌들이 스며든 어눌한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주체적인 체험을 담았기에 생생한 감정까지 전해져 감동의 여운이 짙게 퍼진다.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레시피 없는 요리 수필 양희용 / 수필과 비평사

직장 생활 30년 동안 직접 할 수 있었던 요리는 라면뿐, '삼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요리를 시작했던 작가는 '요리 100편'의 대장정을 달성했다. 더불어 독창적이고 특이한 수필집을 꿈꾸며 '요리'를 주제로 네 번째 작품집도 엮었다. 안방보다 주방이 더 편한 장소가 될 정도로 부지런히 드나들며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스스로 위안받았음을 고백한다. '잡채의 품격, 김밥을 말며, 시락국 한 그릇, 믹스커피 애호가, 닭뿔집' 등 고급스럽게나 귀한 것이 아닌 서민들이 흔히 애용하는 재료들이다. 무치고 볶고 끓이는 동안 감칠맛이 올라와 입맛을 다시게 하기도 하고, 요리에 얽힌 이야기들이 추억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흥어의 단점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장점만 보인다. ... 내가 흥어를 보듯,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상대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생각해본다.'(『숙성된 흥어』 중)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장	122.57㎡
4층 전시장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신정	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명장)	3 가곡교실 12시~13시 50분(2층 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 연습실)	4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 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5	6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산지회_2024대한민국 향토음악인 신춘대축제 오후 2시, 010-2166-2468
7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산지회 _2024대한민국 향토음악인 신춘대축제 오후 1시, 010-2166-2468	8 곽진숙 개인전 _애견미용전시 및 사진전, 010-9342-5265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 연습실)	9 곽진숙 개인전 _애견미용전시 및 사진전, 010-9342-5265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명장)	10 곽진숙 개인전 _애견미용전시 및 사진전, 010-9342-5265 가곡교실 12시~13시 50분(2층 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 연습실)	11 곽진숙 개인전 _애견미용전시 및 사진전, 010-9342-5265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 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2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13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부산STAPS_2024 부산댄스페스티벌, 오후 6시 30분, 010-8329-0555
14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15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 연습실)	16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명장)	17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가곡교실 12시~13시 50분(2층 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 연습실)	18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 연습실)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9 김소희_이끌리다, 010-9596-0079 라희음악학원_LAHEE FRIENDS CONCERT 7TH, 오후 18시 30분, 010-9088-5755	20 공인자 개인전, 010-7730-8808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 051)634-1295
21 공인자 개인전, 010-7730-8808	22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 연습실)	23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 30분~15시 30분(공명장)	24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가곡교실 12시~13시 50분(2층 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 30분(2층 연습실)	25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 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 50분(4층 연습실) 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 051)632-2400 부산문인협회_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6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부산문인협회 정기총회 051)632-5888	27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어드벤처 연구소 정기연주회 오후 2시, 051)611-4558
28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자민음악학원 제13회 정기연주회, 오후 3시 30분, 051)703-5464	29 이규열 개인전_내면, 010-3270-5840 웰빙댄스 10시~11시 30분(4층 연습실)	30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31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